

I. 서론

1.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미국이 곧 세계이다. 기독교는 인류가 갖는 이상적 가치의 보고이다.” 약 20년 전 이러한 말은 무척 그럴 듯해 보였다. 세칭 일류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꿈을 찾아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로 떠났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탁소, 자동차 정비공장 등을 세우고 성공한 재외한국인으로 평가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어른들의 향수와 눈물을 자아내던 그 때에도 지구촌 곳곳을 무던히도 앞서 보려는 눈들이 있었다.

북한산 자락이 보이는 학교 창가에 앉으면 영어교과서에 수록된 큰 바위 얼굴의 모습과 야망을 담은 듯한 인수봉을 보며 미국만을 꿈꾸던 사춘기 중학생들이 모여있던 반에 엉뚱한 지리선생님이 등장했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리아스식해안, 퇴적층, 아열대기후 등등 상상보다 재미없던 지리시간을 물리치고 마치 찬송가 가사를 통해 설교를 하려는 목사님처럼 진지한 모습을 하며 큼직하게 칠판에 쓴 글씨를 보며 의아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그 선생님의 일갈은 “야망과 꿈은 무한한 상상을 통해서 나온다. 너희들은 지평선을 본 적이 있는가. 가도 가도 끝이없는 들판 야트막한 야산조차 보이지 않는 광활한 들판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인도는 대륙이다. 기차길을 따라 펼쳐지는 한없이 보이는 평야. 그것을 상상해 보라.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 새로움과 두려움?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온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너희들이 갖는 꿈과 이상과 그리고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에 달려 있다. 세계를 보아라. 지리를 보지 말고 너희처럼 생각하고 먹고 입고 자지만 다른 풍습과 문화 그리고 이념을 갖고 있는 세계인들을 떠올려 보아라. 외국사람은 곧 미국사람이 아니다. 왜 이슬람교와 힌두교 그리고 유교에는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인가? 두고 보아라. 어떤

문명이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다. 단지 그런 것처럼 잠시 보일 뿐이다. 미혹되지 말아라. 넓은 세계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세계를 보아라 그러면 새로운 삶과 이상의 지평이 보일 것이다. 너희 이성친구보다 더 아름다운 또 그보다 더 멋있는 이성이 자꾸 그려질 때 우리의 꿈과 삶은 운택해진다. 그것이 애국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시절에 국어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었다. “이 좁디 좁은 땅에서만 살 생각하지 말고 넓은 땅으로 나아가라. 이민을 가야한다. 지금은 실감나지 않겠지만 몇 년만 지나보아라 이민가는 사람이 나라를 위한 사람이고 애국자라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다. 해외동포들에게 잘해주어야 한다. 국경은 없어진다. 단지 민족만이 존재할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강인하게 남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어학을 공부하고 펼쳐질 삶을 착실히 계획해라. 영어를 열심히 해라. 수단적 도구로 열심히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왜 국제교류활동을 활성화해야 하는가?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어떤 방향과 접근방법으로 그들의 국제교류활동을 증진시키고 도와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 위의 두가지 일화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주제에 대해 몇가지 시사를 준다.

첫째, 상황의 변화이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중 경제적 성장이 우리의 국력과 국가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견인차의 기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문화적 중요성도 확대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식민지배하에서 독립하자마자 타외에 의한 국토 분단으로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겪은 나라가 반세기도 못되어 세계 10위권의 교역량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군들의 씨레이션을 뒤지며 초콜릿과 껌을 찾아내던 어린 이들은 이제는 국가성장의 주역으로서 물질적 풍요와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멋지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트완다 난민촌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못이겨 나온 헛배가 아닌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이 배태한 비만과의 치열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필승의 전략을 마련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각종의 국제 구호단체가 철수한지는 이미 여러해가 지났

고, 아시아개발은행의 수혜국으로서도 화려한 졸업식을 거행했으며 이제는 연간 1억불에 가까운 금액을 세계 도처에 지원해주는 등 경제선진국의 진입로에 서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은 세계를 보는 인식과 태도에 있어 새로운 자세를 요구한다. 이처럼 국제적 부담금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때, 국제교류활동도 이전의 방법과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경쟁시대의 도래이다. 공산권의 점진적인 몰락과 정보통신망의 급격한 발전 등 이념보다는 삶의 질의 구체적인 향상에 세계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전쟁을 치열히 가속화하고 있다. 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있는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구호가 단지 우리의 의식과 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키려는 경각심이 아닌 냉엄한 현실논리라고 볼 때 국제교류는 경쟁력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초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경쟁력있는 국가란 무엇일까? 경쟁력은 상대를 눌러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냉전시대의 경쟁력은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우월한 상황과 힘을 의미했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경쟁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과거의 경쟁은 유한경쟁 finite game이었다. 다시 말해 요즈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농구경기처럼 일정한 선을 긋고 규칙을 만들어 제한된 시간내에 많은 점수를 내는 편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이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한다. 승자는 승리의 환호와 우승의 월계관을 차지하고 패자는 말없이 돌아설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무한경쟁 infinite game의 시대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상호의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무한경쟁은 경기의 목적이 승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계속성에 있다. 무한경쟁은 상대와의 싸움이 아닌 자신의 부단한 극복과 혁신이다. 우리나라도 요즈음 영국이나 미국의 장기공연 연극처럼 오랜기간동안 같은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연극이 있다. 이같은 연극은 각본은 같지만 연기와 관객은 변화한다. 이처럼 무한히 바뀌는 관객에게 더 좋은 연기와 조명, 의상, 무대디자인을 보여주는 노력으로서 계속해서 관객을 흡인하는 힘이 바로 무한경쟁력이다. 무한경쟁은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공존의 동반자를 필요로 한다. 이 경쟁은 상대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고, 돕고, 보다 높은 질의 삶을 꾸려나가는

터전과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셋째, 민족과 자아정체성의 견고한 확립이다. 왜 세계를 향한 눈이 필요한가? 인간은 부단히 환경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가진 동물이다. 한 개체로서의 인간은 사회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굴절시키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갖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눈이 필요하다. 이처럼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자아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계속에 자신을 내던지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또한 세계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주체적 의식과 의지가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계안에서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자긍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확고히 정립하여야 한다. 이렇듯 한 개인도 스스로 세계화하고 국제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과 민족적 뿌리를 흔들림없이 붙잡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 즉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서는 풍요로운 선진국가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구한 대륙적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본다. 국제교류는 국가간 또는 개인간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또한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국제교류 활동은 앞서 언급한 우리의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제는 국제적인 친선과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국제인으로서 전방위 시각을 요구하는 세계화시대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은 지금 보다는 그들에게 주어질 미래를 위해 유익한 방법과 방향이 무엇인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준비없이 부딪치고 체험하는 것도 세계화시대에 국제인이 되는 한 방법이지만 자칫 무모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분별력과 목적의식을 갖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나라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삶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개발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교류활동을 하는데 있어 청소년

들이 미리 습득해야 할 자세와 지식 그리고 내용을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합한 수련거리로 만들어 직접 세계속에 나아가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도와줌은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자아의 주체를 확실히 가진 국제인으로서 안목을 키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개발연구는 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통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윤리와 인류애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청소년들 각자가 새로운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편으로서의 이념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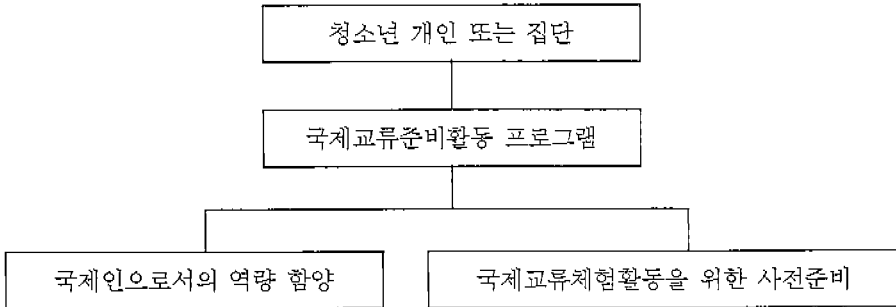
2. 개발의 내용

본 개발연구는 각국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기존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과 선진문화를 익히기 위한 해외연수 등에 관심을 쏟아온 부분에 더하여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국제환경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국제교류의 양적인 증가와 확대에 비해, 프로그램과 국제교류참가 청소년들의 자세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외 다른 자료나 프로그램의 개발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식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으로 청소년들의 배낭여행 등 청소년들 스스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해외여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관련된 정보나 국제인으로서의 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편적으로 나타나있다. 간단한 여행수기나 방문국에 대한 지리 및 문화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직접적 체험을 위해 각종 정보의 입수를 통한 사전준비와 함께 국제인으로서의 감각과 자질을 훈련할 수 있는 각종의 모형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본 개발연구는 청소년 개인과 집단이 국제교류활동을 위한 어떠한 자세와 능력을 함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국제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활동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국제교류활동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국제인으로서의 안목과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수련거리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한다.

하나는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의 필요성과 개발의 의의와 방향을 서술하고 국제교류의 이론적 터반이 되는 청소년과 세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정리한 개발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 수련거리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개발의 이론적 근거와 배경을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개발보고서와 국제교류준비활동의 개발요구를 바탕으로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집을 만든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아이디어의 나열이 아닌 개발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논리와 순서를 토대로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연관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3. 개발의 방법

본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 수련거리 개발연구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프로그램집(수련거리기본형)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 프로그램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정보 그리고 관련전문가와 국제활동 체험현장 관계자들의 의견과 자문을 통해 개발보고서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본 개발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주요한 연구방법을 통해 달성한다.

- 1) 문헌 연구 :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에 관계되는 각종문헌 및 프로그램의 수집 분석연구.
- 2) 전문가 워크샵 : 청소년 국제교류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워크샵을 통해 국제교류준비활동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 모색.
- 3) 전문가 면담 : 관련 전문가 면접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한 국제교류활동에 관련된 자문 및 의견수렴.

II. 이론적 논의 : 세계화와 청소년¹⁾

1. 세계화와 신세대, 그리고 민족적 자아²⁾

1) 서 론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개방화나 국제화, 혹은 세계화의 문제로 떠들썩한 상태에 있다. 각종 매스콤은 이 문제를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며, 대학의 강단이나 국회의 의사당으로부터 산골의 농촌에 이르기까지 이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사회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으므로 인간의 역사는 곧 개방화의 과정에 관한 기록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상과 그 문제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왜 이토록 당황해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처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첫째, 그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진행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주체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는 아테네가 페르시아나 마케도니아와

1) 이 이론적 논의 부분은 '세계화와 신세대'의 주제로 개최한 국제준비교류활동 워크샵 발표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2) 엄정식 (서강대학교수)

관계를 맺거나 심지어 이조 말엽에 개국을 강요당하던 상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 범위가 넓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오늘날의 개방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이고, 또한 정치 및 경제적 차원의 교류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적 측면까지도 모두 그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율성을 지키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기가 불가능하며 문화적으로도 독자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주체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세계적인 개방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인지 규명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지금의 단계로서는 방향과 태도만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도 앞으로 전개될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서게 될 무렵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류 국가의 위치를 확보할 것이고 동시에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현재 제시된 정부의 시책이지만 현 정권만의 임무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각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성세대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미래의 창조적 작업이며, 앞으로 수립되는 모든 정권의 기본 자세일 뿐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모든 세대들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한 것이다. 세계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른바 ‘신세대’의 생활태도와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신념체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세계화의 절박성을 공감하지 않고 그 대책에 동참하지 않으며 그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정권의 일회적인 공약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세계화 혹은 개방화를 논의하고 그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분단된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비록 세계화 정책이 남한의 김영삼정권에 의해 수립된 것이지만 그것이 동시

에 북한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별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 정책에 의해 남한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적개심과 소외감을 조장하고 민족의 분단을 심화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남한만의 세계화가 아니라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이 전제가 되어야하며, 또한 그것은 미래의 창조적 작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인 신세대의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지도해야 하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2) 세계화의 의미와 신세대

세계화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규모의 개방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국가의 정책에 따라 촉진될 수도 있지만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물질적인 상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화와 각종 정보가 국경을 넘어서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경을 넘어서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에 따라 인간의 사고와 조직과 전략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질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에 빈번히 직면하게 되므로 사고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생활태도가 신축성을 지니고 조직이 방대해짐은 물론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치밀한 계획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단순히 외부세계로의 진출을 의미할 뿐 아니라 외국의 자본, 기업, 기술, 문화등의 수용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수용에 대비하는 방안과 대책의 강구도 의미한다. 결국 세계화는 ‘세계로의 진출’과 ‘세계로부터의 수용’을 함께 의미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세계와의 유기적인 통합’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산이나 분배, 교환등 경제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정보나 인간관계 등이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져서 국가적 차원에서
 의 경제, 정치, 문화의 재생산이 점점 더 세계적 맥락에서만 가능하고 또 구
 체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들
 각자의 생활태도나 사고방식, 신념체계도 세계적인 맥락속에서 형성되고 또
 검증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함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가 이
 시대의 특징인 자연스러운 문화변동의 추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
 권이 제시하는 국가적 시책으로 등장할 때 이에 대비하는 방안도 매우 신중
 하고 용의주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인위적인 촉진제가 작용하기 때
 문에 이에 따른 변화가 급격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
 라오기 때문이다. 가령 여성의 지위, 노동계층의 소외, 농어민의 복지, 중소기업
 의 육성, 교육기관과 제도의 개혁, 가족개념의 변화, 그리고 각종 문화현상
 의 변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충격을 극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
 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역인 신세대들의 생활태도와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신념체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해 나가는 일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미래의
 창조적 작업이며 그러한 것들은 모두 이 작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세대’란 무엇이며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들을 어떤 방향으로 선도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신세대’란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세계화의 저변에 깔린 일반적인 추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세대의 당위와 진로는 이러한 맥락에서만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신세대’란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 ‘구세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고방
 식이나 생활태도 혹은 신념체계가 현저하게 다른 젊은세대를 지칭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기 마련이며 역사
 의 전개나 문화의 변천에 따라 극히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급변하
 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세대간의 충돌도 심각해지면
 ‘신세대’란 말은 단순히 ‘새로 등장하는 젊은세대’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게 된
 다.

우리가 지금 문제삼고 있는 ‘신세대’는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자유민주주의의 추세, 그리고 과학기술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체로 그들은 물질적으로 궁핍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서 기성세대의 고난과 절곡을 실감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여 권력에 대한 야심이 희박하고 경제적으로는 무절제하게 과소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현세적 쾌락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신세대는 기성세대가 겪은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고난, 문화적 갈등 등의 역사와 단절된 채 자기 지시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 민족, 경제, 계급 등의 사회적 갈등구조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등, 민주와 해방이 곧 손에 닿을 것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와같이 그들은 소비사회의 논리에 포섭되어 사회적 갈등구조로부터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도 격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신세대가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의 소도구로서 등장한 좁은 의미의 ‘신세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정치권력과 상업자본이 야합하여 대중지배를 수월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생아’의 성격을 띤다. 그들은 일반적 신세대에 비하여 미래에 대하여 더욱 무관심하고 지나치게 향락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걷기도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일정한 생활태도나 일관된 신념체계 같은 것을 지니지 않는 부류들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신세대가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류와 일부의 부정적인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물론 전자에 국한하는 것이다.

한편 신세대는 대체로 이상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지만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 신세대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안일하고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현세적 삶을 살고 있지만 일부는 미국이 누렸던 영광과 자긍심이 손상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의 신세대들이며, 다른 일부는 방종과 타락과 범죄에 물들어서 미국의 쇠망을 재촉하는 신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의 신세대들은 민족적 긍지를 상실하고 있다가 최근에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 의존하

던 자세에서 벗어나 별도로 객관적 가치인 평화와 평등을 급진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기성 가치를 파괴하고 부정하여 인구의 감소와 도덕의 붕괴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일본의 신세대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매우 성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미래를 위한 설계나 야망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현재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점이 색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신세대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한국의 신세대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들의 시대적 역할과 당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구세대 혹은 기성세대의 입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세대는 본질적으로 기성세대에 대비하는 개념이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세대 혹은 기성세대들은 매우 특수한 시대를 살아왔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우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했고 분단된 민족과 국가를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회복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이 민족의 고질적인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진지한 검토와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한 채 서구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고 이들에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성세대는 신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 주었는가? 물론 이것을 모두 열거할 수가 없고 또 열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에 직면하여 신세대가 절감해야 할 역사적 사명과 또 그것을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업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경제, 정치, 문화의 분야에서 어떠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성세대가 이룩한 업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급속한 경제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보리고개를 염려하거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비를 오히려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에 휩쓸리고 있는 형편이다. 신세대가 마음 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낭비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가

난을 극복해 보려는 기성세대들의 피나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이룩한 빛나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기성세대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마침내 그토록 오랫동안 선망의 대상이었던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하여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들기에 이른 것이다.

그 후 기성세대는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것이 비록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될지라도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미국에 의존했던 과거의 입장으로 비추어 보거나 군사정권 아래서의 정치활동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것만은 확실하다. 오늘날 신세대들의 과반수가 “정치에 관심 없다”(중앙일보, 8. 16)는 보도는 그들에게 정치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기성세대들처럼 정치적 현상에 항상 예민한 촉각을 세우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성세대는 종교, 예술, 사상, 관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무분별할 정도로 서구의 문물을 도입하였으나 최근에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를 다시 인식하고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신세대가 대중문화를 부담없이 즐기고 어느 정도 퇴폐의 풍조를 보일 정도로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게 된 것도 기성세대의 강렬한 문화적 흡인력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기성세대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전형적인 후진국에서 일약 선진국의 문턱까지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이끌어 올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신세대는 다른 나라의 신세대들과는 달리 이 수준을 확고하게 다지고 계속 돌진해 가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기성세대가 이룩한 업적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과도기에 머물러 있고, 세계화는 바로 이 미완성의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 땅의 신세대는 기성세대가 성취한 과도기적 업적 혹은 설익은 열매를 따놓고 향연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짐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신세대와 다른 나라의 신세대간의 차이점이고, 한국의 세계화와 다른 나라의 세계화가 보여주는 격차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에 처해있는 한국의 신세대가 세계화를 위해 취해야 할 신념과 태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3) 신세대의 자세

한국의 신세대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기성세대가 도달한 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기성세대가 이룩한 업적이 미완성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절감해야 하는 것은 세계화의 기본 전제가 되는 민족적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도 세계화할 주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방향감각을 잃게 되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세계화가 단순히 현정권의 일회적 정치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그것은 남한만의 세계화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한민족 전체의 세계화이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땅의 기성세대는 신세대에게 통일된 민족과 국가와 국토를 물려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신세대는 무엇보다 강력한 민족주의로 무장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사실 지난 1세기 동안 모든 신세대들에게 공통된 시대적 사명은 민족적 자각이었고 학생운동의 일관된 주제도 민족주의였다. 일제치하에서 주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조국이 없거나 동족끼리 분열되어서 온전한 조국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신세대들에게는 항상 이것이 부담스러운 존재방식으로 의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세대들도 조국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있으며 또 망각해서도 안된다. 우리가 북한인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로 남한인으로 자처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신세대들은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에게 분단된 조국을 물려줄 권리가 없는 것처럼 신세대들에게도 그것을 물려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신세대들은 이러한 사실을 절감하고 난 다음 세계화에 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개인에게 ‘인격적 자아’의 인식이 전제가 되는 것처럼 민족의 경우에는 ‘민족적 자아’의 확인이 세계화에 논리적으로 선행되는데, 신세대는 이러한 점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신세대에게 정권차원의 국민윤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역사인식과 민족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개방화시대의 세계화 정책에 임하여 신세대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각이다.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질서의 요체는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이며, 그것은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서도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민주시민으로 교육받고 또 성장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비하는 신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이제 한낱 정치적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일 바람직한 가치관이며 각자 자기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생관인 동시에 사물의 본질과 현상의 구조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방적 세계관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동서고금의 고귀한 문화적 전통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국가적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세계화 정책에 임하여 신세대들의 새로운 변신에 필요한 것은 전문적 기술교육의 중요성과 그것을 제대로 습득하는 일이다. 과학기술의 시대에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기술과 정보를 충분히 갖춘다는 것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경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권의 확립이 필요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른바 ‘기술주권’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신세대는 이러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을 재빨리 습득하고 좀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이들을 단시일내에 앞질러간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날 일반적인 추세로 확산되어 가는 ‘세계화’와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신세대’의 관계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분단시대를 종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개방화와 세계화를 급속도로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세계화가 정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더욱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근대성pre-modernity’을 탈피하지 못한 채로 ‘후기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와 ‘탈근대성post-modernity’을 수용하는 시행착오적 난관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 정책에 임하여 한국의 신세대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와 ‘신세대’의 문제는 결코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문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삼페인을 터뜨리기에 아직 이르다”는 말이 가장 절실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구조때문에 신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한 현실감과 어두운 과거에 대한 역사인식을 동시에 지니고 세계화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질적 풍요를 마음껏 즐기되 기성세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하고 자율적 개체로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되 기성세대들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한편 기성세대들은 그러한 역설적 구조를 창출해 낸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적 세계화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한국적 세계화의 특수성과 당위성과 난해성을 공감하고 그 문제를 공유할 때 우리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2. 세계화와 청소년교육³⁾

1) 세계화와 신세대 문화

세계화의 정체를 이해하려는 여러가지 학문적인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인문학적 입장에서는 세계화를 순수하게 문명사적 이해와 문명사적 과제로서, 다시 말해서 인류과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기초수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문화인류학적 입장이나 지리학적 입장에서는 타 인종, 혹은 타 문화의 이해수단으로 세계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언론학이나 방송학 등에서는 정보화시대의 결과물로서 세계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세계화가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에 이르게 되면, 보다 전략적인 입장에 서게 되어, 마침내 그것의 주역은 국가간의 무역경쟁과 경제적 생존문제로 변질되게 된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의 경제적 변환을 우리는 무역경쟁의 조류라고 본다. 국제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그것의 무게중심이 이제는 국제정치로부터 국제경제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서서히 국가단위 경제로부터 블록단위의 경쟁체제로 바뀌고 있다. 이런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유럽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EU의 탄생과, 북미를 하나로 묶는 NAFTA 창출같은 것이다. 아시아권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가 있으나, 이 기구가 아시아 여러 나라를 구속하는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세계화globalization란 국제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지구촌의식의 공유를 의미한다. 즉, 국제무역시장에 있어서 인력이동의 자유와 이윤추구의 자유 그리고 생존의 자유가 국가간에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화이다. 러시아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생활할 때, 러시아인이라는 인종적인 이유때문에 경제적 이윤추구나 이동의 자유를 박해받을 수는 없다. 그 반대로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어야 한다.

3) 한준상(연세대교수)

물론 이런 논리는 항상 현실점검에서는 절반의 허구로 나타나는 것도 예사이다. 그래서 세계화란 현실적인 감각에서 보면 경영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 globalization를 상대하되, 이윤만큼은 철저히 현지 localization에서 추구하는 소위, 그로칼리제이션 glocalization이 세계화의 중심전략이 된다. 이런 상황에는 여러가지 외교적이거나, 경제적인 장애가 있게 된다. 그러나 국가간의 치열한 무역경쟁의 상황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극복하는 것이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당위성때문에 세계화는 국가경쟁을 추진하게 만드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간의 경제활동이 불럭화되고 그로칼리제이션화됨으로써, 이제 어느 나라든 그 틈새를 영성한 상태로는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면 불리울수록, 그런 나라들의 그런 틈새도 적어지고 있으며, 설령 그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비집고 들어가기는 더욱 더 어렵다. 무역경쟁의 경우, “외국제품의 질과 같아서 수출할 수 없다”는 어느 기업광고의 절규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편은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생존을 위해 세계화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의 장래를 교육과 새로운 세대에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국마다 전개되는 교육개혁의 속사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교육 역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대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화나 교육에 대한 기대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강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 이런 이유는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는 그 특유한 자민족 우월성에 안주하고 있고, 또 그런 교육을 당연시해왔기에 세계화라는 개념이 보다 더 사회적으로 그 무슨 유별난 의미를 갖는 새로운 쟁점으로 돋보였을 수도 있다. 혹은 수출지향적인 우리 경제구조가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우리 경제구조의 세계화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여러 민족간의 교류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개방적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세계화와 우리나라의 세계화는 그 본질이나 방향설정부터 다를 수가 있다.

나는 이 글속에서 경제적인 세계화 혹은 그로칼리제이션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종속된 수동적인 교육개혁의 전환에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다가오고 있는 세기전환적인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세대 준비교육의 방향에 대해 일차적인 관심을 보이려고 한다.

2) 세계화의 전략

세계화가 21세기로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세기변환적인 개념이라면, 이 개념의 창출을 교육적인 상황과 맥을 이어볼 때에, 그것은 첫째, 21세기로의 세기전환을 강요하는 포스트모던의 성향과도 밀접하다. 냉전시기까지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정체성만이 드러나던 그때와는 달리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소수 민족의 문화와 그런 나라들의 문화적 정체성 역시 차별화되어 이곳 저곳에서 새롭게 드러난 세기변환적 시대정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세계간의 이웃정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직까지도 인종간의 갈등과 투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대국들은 세계화라는 이웃정신으로 국가간의 협동을 진지하게 거론하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세계화는 경제적 공리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서로가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과 국가적 차별성을 드러내놓고 경쟁해야하는 한, 노력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경제적 공리주의가 세계화의 이면을 단단히 떠받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는 정보혁명에 의해서 가속화되었다. 다매체, 다채널의 위성통신 혁명에 의해(참고; 이동규, 김태은, 1995), 자기 집 안방에 누워서도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는 초抄단위 최신정보를 리얼타임의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으며, 북극에서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손목에 찬 이동전화로 그간 그간의 사정을 교환할 수 있는 텔레콤사회와 위성비즈니스의 정보혁명이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한때는 북경에서의 나비 한마리의 팔력임때문에 미국의 마이아미반도에서 태풍을 맞게되는 것에 속수무책이었지만, 이제는 텔레데모크라시에 의해 쿠데타 같은 정변들이 세계 곳곳에서 속속들이 점점되도록 되어있다. 특별히 정보통신의 혁명은 무역업계에서는 기업간, 혹은 국가간의 재財테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이유와 근거들로 인해 항상 세계사 속에서 전쟁과 쿠데타 혹은 남북분단의 비극을 상징하는 국가로 남아

있던 우리나라의 새로운 변신과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신세대와, 그런 신세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새로운 교육을 연상하게 된다.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에 의해 떠받쳐진 세계화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교육에 와닿기 위해서는 서너가지 명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 ① 현지화는 세계화이다.
- ② 외국어는 세계화이다.
- ③ 컴퓨터 마인드는 세계화이다.
- ④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은 세계화이다.

이 모두는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교육개혁의 근거로 등장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탁월성 추구, 국가경쟁에 있어서의 탁월성 추구하고 무관하지 않다. 극단적인 예로, 올림픽 경기에서 보았듯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신기록을 내야 한다. 즉, 각 분야에서의 탁월성만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화된 감각을 얻어내려면, 탁월성이 세계 곳곳에서 현지화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지화가 되면 될수록 세계화가 되는 것이고, 외국어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세계화가 되는 것이고, 컴퓨터를 활용한 외국과의 정보처리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세계화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세가지 능력이나 경험 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표출되면 표출될수록 그 만큼 더욱 더 세계화가 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인간으로서의 탁월성 역시 더욱 더 발휘된다는 서술적인 가설 역시 가능하다.

이런 가설이 어느 정도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의 차이는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감각적인 문화적인 혹은 교육적인 차이를 갈라놓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신세대들은 그의 어버이세대와는 다르게 세계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교육적 환경이나 정보처리의 환경에의 접근이나 활용이 보다 더 용이함으로써 보다 더 세계화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과 용기만 낸다면 세계각국을 향한 현지 사회교육과 배낭교육이 가능하다. 이미 컴퓨터를 활용하는 신세대가 그들 연령인구층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들의 외국어

발음은 30년전 그들의 아버지가 배웠던 ‘도락truck’보다는 훨씬 더 원음에 가깝도록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발음할 수 있는 교육이라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도락그문화 속에서도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여 그것을 팔기 위해 세계시장의 여러 사람과 합리적으로 계약해내는 능력도 다른나라 신세대에 비해 돋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학교교육의 신세대 문화지체론

지금의 신세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계화의 과제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만큼은 아직도 원시적이다. 세계화에 관계된 지식보급에도 미약하고, 세계화를 위한 기술보급에도 미숙하다. 더 나아가 세계화를 향한 태도변화 교육 역시 난감하다.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라는 사실을 외우게 하는 것과 파리에 가서 전차표를 구입하게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베트남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포장마차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막국수를 사먹는 것과는 그 교육의 질이 다르다.

지금의 우리 학교교육이 신세대들에게 세계화를 향한 정신건강 보호에 어느 정도로 무심한지를 알리기 위해 교육사회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이야기거리나 수백권에 달하는 각주들을 열거해낼 필요는 없다. 손쉽게는 작가 이문열이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으면 된다. 무능하기 그지없는 담임선생과 그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학생위에 군림하는 엄석대, 그리고 그의 교실내 줄개들이 그려나가는 비민주화된 학교생활을 보면 된다. 세월은 지났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미워할 수 있는 분위기 만큼은 옛날에 있었던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그 교실의 무표정, 그 학교교육의 무감각 그대로는 강우석 감독이 찍은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에서도 나오고, 황규석 감독이 찍어낸 〈꼴찌부터 일등까지 우리만을 찾습니다〉에서도 재연된다. 마빈 해리스(Harris, 1987, 1995)의 〈식인과 제왕Carnivals and Kings〉에서 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석기시대의 사냥꾼보다도 더 많이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주장했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발전한 것이라고는, 한치도 없었

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조금 더 나아가 학교교육의 구태의연함을 이해하기 위해 신중한 검증없이 화두를 꺼낸다면 학교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는 흡연의 본질과 엇비슷하다고 보면 틀림없다.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여러가지 건강문제를 생각해서 담배팩 옆에는 이런 경구를 써놓는다. ‘흡연은 폐암과 심장병, 그리고 임산부에게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고문을 써 놓는다.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염려하는 선진국일수록 흡연에 대한 경구는 자세하다. 후진국일수록 그 경구는 ‘흡연은 여러분의 건강에 해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일반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경구를 집어 넣는 차이가 있다. 이런 상징을 학교교육에 비유적으로 적용해서 이해하면 학교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학교교육은 자라나는 신세대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학교교육을 삼가 합시다’라고 비유하면 학교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꿰뚫어 볼 수가 있다. 흡연이 건강을 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절연되고 있지 않듯이 학교교육도 그 스스로 죽을때까지 살아있기 마련이다.

지금의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선진국에서조차 그 정황이 비슷하다.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조류에 역행까지 해나가는 지금의 학교교육으로는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이미 학교비판과 학교교육 개혁의 근거로 제시되곤 한다. 학생들이나 모아놓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나 즐기면 학교는 테스먼드 모리스(Morris, 1994)의 〈인간동물원〉과 한준상(1995)의 〈학교 스트레스〉에서 갈파한 것처럼, 청소년동물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서로를 증오하게 하고 그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스트레스나 야기시키고 있다는 학교교육 비판론마저 일어나고 있다.

학교는 요술쟁이들의 모임소도 아니고 주술로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곳도 아니다. 아이들이 교사들의 요술봉과 주문때문에 별안간 영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칠만한 것을 가르치고 배울만한 기술을 배우게 했을때 비로소 아이들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학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되는 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주문이나 줄줄 외워대기만 한다는 것이다. 컴맹세대가 신세대에게 ‘컴퓨터는 기계이다’라고 가르치는 교육적 실수가 연발하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교사들이 행하는 교실속의 철기시대 교육은 전자시대의 신세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4) 학교추방론의 근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페렐만(Perelman, 1994)은 “학교는 이제 그만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꺼져줘야 한다 school’s out”고 주장한다. 이런 학교추방론은 일찌기 라이머Reimer나 일리치Illich들이 낭만적으로 내세웠던 학교사망론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페렐만은 지금의 학교교육이 신세대의 성장을 위해 시대적으로 뒤쳐져있음을 21세기식 정보자료로서 하나씩 논박해 가고 있다. 물론 이런 학교추방론은 미국의 교육에 국한되는 경우이겠지만, 페렐만의 이야기대로라면 어쨌든간에 미국의 교육은 큰일날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처리 능력이 뛰어난 하이테크 신세대high tech new generation를 로우테크 교사low tech teachers들이 가르치고 있기에 지금의 신세대는 더욱 더 우매해지는 것이다.

페렐만의 이야기에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신세대의 학교교육은 10가지 신종 교육신화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모두는 그동안 교육학의 완성을 위해 여러 교육학자들이 연구하고 실험해서 쌓아놓았던 교육학적 명제들이다.

- ① 인간이란 학교에서 배워야만 제대로 배운다.
- ② 학교는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
- ③ 교사는 샘이고 학생은 종지이다.
- ④ 학력은 학습이다.
- ⑤ 달리기 전에 걷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 ⑥ 교육과 훈련은 다른 것이다.
- ⑦ 어떤 아이는 더 똑똑하다.
- ⑧ 기술보다는 지식이 중요하다.
- ⑨ 공부란 혼자해야 한다.
- ⑩ 학교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된다.

교육학적 이론에 관련된 이 책 저 책에서 추려지게 되는 이런 명제는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 모두는 농경시대에 정보제한적인 학교교육에서나 통용되던 명제라는 것이다. 이 모두가 학교에서 늘 듣는 말이고 모두가 사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라고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메타과학적인 담론이자 하나의 사회적 신화들이라는 것이 페렐만의 또 다른 확신이다.

이런 명제들이 미래교육에 있어서 그 어떤 교육학적 위신을 갖을지를 가리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고, 이런 조소와 조롱을 듣게 되는 학교교육의 조건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모아 본다면, 그것은 학교교육의 교육과정의 사회적 흐름에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불거진 것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모두의 비판과 염려는 학교교육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라고 보지는 말아야 한다. 오히려 세기변환적인 사회변화와 평생교육적인 흐름에 학교교육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라는 요청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5) 신세대 학교 교육과정의 개혁론

지금까지 논의한 신세대의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학교교육의 미숙성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교육 개혁의 내적 중심 과제와 전략은 서너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런 과제들은 신세대의 능력에 대한 몇가지 전제를 필요로 한다.

- ① 모든 신세대는 각자의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재능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② 모든 신세대는 그들의 재능을 다양한 환경아래에서 각자 다르게 개발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
- ③ 모든 신세대가 갖고 있는 재능의 발견은 학교, 가정, 사회등 광범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 학교교육의 역할은 보다 더 체계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중심적이어야 한다.
- ④ 다양한 재능을 지니고 있는 신세대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 교육과정이 개인의 평생교육적 흐름에 합당하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방법이 개편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세대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은 곧 우리 학교현장에서 실시될 제6차 교육과정 개편안으로 만족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든 바뀌어질 먼 미래의 교육과정 개정안, 말하자면 지금의 두살배기가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킬때쯤 나타날 아마 제15차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다뤄질 수 있을직한 교육내용을 미리 앞당겨 교실현장에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정보공학의 추이를 따라가면, 세계화된 신세대의 교육은 지금과는 엄청난 질적 차이와 구조적 변화를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참고 표 1).

〈표 1〉 세계화 중심의 교육파라다임

단일국가시대 교육	세계화시대 교육
• 학벌중시 • 수동적 지식의 전래 • 단편적 사고 • 암기회상 능력 • 획일적 강의 중심 • 국가적 관점 (단일사고) • 통제적 분위기	• 능력 중심, 자아실현 • 메타 인지능력 • 통합적 사고 • 창의적 사고력 • 경험학습 방법 • 세계적 관점 (다양한 사고) • 가상현실 분위기

6) 신세대 주비籌備교육과정

바로 이런 일이 우리교육의 흐름을 세계화 흐름의 중앙에 위치시키는 일이며, 그런 교육개혁적 흐름이 있을때 비로소 우리의 교육은 다른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자주 거론도 될 것이며, 동시에 하나의 교육모델로 인용도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교육에 의하면, 일본의 교육에 의하면, 독일의 교육에 의하면과 같은 인용어들은 교육서적에서 사라지고, 그대신 한국의 교육에 의하면, 우리의 일본 교육은, 우리의 미국교육은 이렇게 바뀌어 인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교 교육과정은 철저히 미래의 틀 속에서 해체되어야 한다.

- ① 대중매체를 선용하는 ‘미디어교육media education’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② 논리력과 창의력의 동시개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③ 민주시민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등 사회과 교과목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 ④ 예술, 정보처리, 문화교과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 ⑤ 직업기술 교육, 생애개발 교과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⑥ 읽고, 쓰고, 셈하기등의 기초교과가 적절하게 다뤄져야 한다.
- ⑦ 다중언어 교육과 다문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⑧ 예절, 신체적 여가선용 교육이 적절하게 다뤄져야 한다.
- ⑨ 환경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실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신세대 대비 교육과정 구성의 철학들로 투사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 개편의 요체는 굿라드(Goodlad, 1984) 교수가 질문한 “도대체 학교라는 것은 무엇에 쓰여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 이 교장과 교사는 신세대를 위해 도대체 어떻게 쓰여야 될 사람인가? 이 책상과 결상은 신세대를 위해 도대체 어떻게 쓰일 물건인가? 이 교과서는 도대체 신세대를 위해 어떻게 쓰일것인가? 도대체 이 연구소는 신세대를 위해 어떻게 쓰일 것인가?라는 식의 토달이식 문제제기를 하나씩 해나가면, 아무리 능력이 없다는 치더라도 신세대에 관한 연구물이 아니라 신세대를 위한 연구물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적당히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것이고, 아무리 부족해도 20년전의 칠판을 아직까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이고, 아무리 게을러도 준비없이 교실수업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부분부분마다 신세대 교육을 위해 개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신세대 주비교육과정 철학 중에서도 몇가지 현실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들을 골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와 영상매체에 의해 만들어진 신세대에게 수동적으로 이런저런 지식이나 태도를 주입하려고 준비하는 성인중심, 교사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우리사회가 나아가려는 방향에 합당한 신세대를 능동적으로 키워 나가려는 동시에 학교교육의 소비자들인 신세대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7) 창의력과 논리력의 집합개발

서울방송이 한때 21세기 신한국의 선택이라는 해외교육의 현장프로그램을 통해 외국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을 풀어헤쳐준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교사들에게 충격을 준 프로그램이 바로 미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생법정 장면이었다. 학생들이 법정출두를 요구받은 동료 학생들의 학교내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와 변호사의 기소와 변론을 들어가며 판사가 최종 선도를 하는 장면장면에서 보여지는 중학생들의 논리싸움에 어른들도 혀를 두들 정도로 완벽했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

신세대들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창의력 교육 그 이상으로 논리적 사고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계화된 사회일수록 이해관계의 상충도 많아지고, 그것의 해결은 논리적 사고력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창의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논리력 개발을 주장하는 에드워드 디 보노(De Bono, 한준상, 1995)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능력을 네 가지로 보는데 동의하고 있다.

- ① 주의력 : 사물에 대한 관찰이나 일어난 사태에 대한 주의집중력
- ② 파지력 : 사물이나 사태의 정황을 기억하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재생하는 능력
- ③ 논리력 : 사물이나 사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추리하며, 그것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
- ④ 창의력 : 사물이나 사태를 새로운 입장으로 탐구하고, 예견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생각들을 산출해 내는 능력

이런 네가지 능력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발견하는 데 모두 필요한 학습능력과 사고능력들이다. 이중에서도 논리력과 창의력은 인간의 고급 정신능력에 속한다. 최근에는 우리교육이 주로 주의력과 파지력과 같은 주지주의적 학습능력 개발에만 신경을 써왔다는 비판아래 창의력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력 교육만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강하게 강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등 정신능력중에서 논리력과 창의력은 서로가 충돌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논리력과 창의력은 둘 다 분석과 종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결과가 논리력은 판단을 얻어내는 데 반해 창의력은 아이디어를 얻어낸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논리력은 판단력 judgement이고 수직적사고 vertical thinking이며, 평면적 생각($2+2=4$)을 기초로 수렴적사고 convergent thinking에 바탕을 두는데 비해, 창의력은 상상력 imagination과 수평적사고 lateral thinking 태도 속에서 입체적 사고($2 \times 2=4$)와, 확산적 divergent 사고를 촉진한 결과이다. 논리력은 인간의 왼쪽 뇌가 발동하는 기능이며, 이것은 다소 연령과 더불어 발달하기에, 다소 제한적이며 통제적이다. 따라서 어려서 이런 능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인간의 논리적 사고력은 더 이상 새롭게 발전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창의력은 인간의 오른쪽 뇌가 발동하는 기능으로서 그 표현은 자유분방하며, 이 능력 역시 무제한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 이 창의력도 어린나이에 개발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개발될 수가 없다.

따라서 논리력이나 창의력 중 어느 한 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개발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한 능력은 쇠퇴하거나 위축된다. 인간의 고등 정신기능인 논리력과 창의력은 이 세상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데 모두 필요하며, 상호 보완적인 능력들이다. 논리력은 판단적인 생각과 추리를 통해서 상상력을 북돋아 주는 창의적 사고력이 정상적인 인간정신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현실 점검 reality check의 견제기능과 보완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활동에 있어서 창의력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면 그것은 심증팔구 비현실적이거나 무현실적이며 망상적인 활동으로 귀결된다. 교육은 현실점검이 결여된 망상가나 공상가를 만들어 내는 데 만족할 수는 없다. 아무리 창의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내놓은 창의적인 생각에는 논리력과 추리력이 보강되어야 비로소 현실이나 미래의 현실과 이어져 쓸모있는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신세대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창의력 개발교육 못지 않게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쓸모있는 아이디어로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것들로 환원될 수 있도록 창의력의 현실점검을 도와주는 논리적인 사고력 개발교육을 동시에 그리고 집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스페이스, 혹은 시뮬레이션 기

법으로 충분히 강화될 수 있다.

8) 신지식 생산능력

컴퓨터 마인드mind란 정보처리능력의 다양화를 말한다. 손쉽게 말해 컴퓨터를 다루는 것을 소극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정보속에 흠어져 있는 지식을 처리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컴퓨터 마인드가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컴퓨터라는 정보처리 기제는 세계를 바꾸는 지식혁명의 시작이며 세계를 받아들이는 창구가 되는 것이다.

한글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모국어이고, 영어가 서로를 살아가게 만드는 제 2의 모국어라면, 컴퓨터를 익히는 것은 세계를 살아가게 만드는 제 3의 모국어와 같다. 그래서 컴맹률은 세계화의 지표와 같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 우리국민의 문해율은 10%미만이었고 반대로 문맹률은 70% 수준으로 후진국의 상징이었다. 1990년대 우리의 컴맹률은 30년대 문맹률보다도 높다. 다행히도 신세대의 컴맹률은 일반 국민의 컴맹률보다는 낮아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신세대로 자라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후관중심의 교실환경은 정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처리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마다 정보처리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런 정보처리 기술들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정보처리 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마치 자동차 수리 전문요원이 자동차 고장과 문제를 도와주듯이 학교마다 정보처리 전문요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위해 대학에서의 정보처리요원 훈련이나 정보처리교사 훈련과정이 새로운 전자공학의 속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은 하나의 기능일 뿐이라는 점 만큼은 지적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기술이 있어도 자동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처럼, 컴퓨터 기술을 익혔다해도 모두가 높은 정보처리 능력을 갖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이 정보처리 능력 축진의 관점으

로 개편되어야 한다. 신세대에게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교육과정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정보 이해력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전달자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한다.

② 정보 선택력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획득한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③ 정보 비판력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렇게 만들어지는 정보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④ 정보 수집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자기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⑤ 정보 처리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갖고있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다른 정보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⑥ 정보 생성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수 많은 정보간의 관계를 이해해가면서 그것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⑦ 정보 전달력을 길러 준다.

자기가 획득한 지식이나 새로운 결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9) 다중문화 흡수능력

우선 모국어는 잘 쓸수 있고, 잘 읽을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와 가치에도 충실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무리 세계화를 뺏대어도,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

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자조의식으로 한국교육과 우리의 신세대를 가꾸면, 일본제국은 영원한 일본제국으로 남아있게 되며, 소련의 몰락도 하나의 허구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더 전라도식 붙어 발음을 내면서도 다른 한 구석에서는 우리 문화가 세계적이라고 우기는 우리 스스로의 문화적 자긍심과 그 깃발에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전라도에 대한 문화적인 자부심을 키워낸다고보다는 전라도를 빌미로 삼아 자기의 무지를 합리화하면서 제 스스로 우리나라를 모욕하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사정이 다급해도 ‘쌀’은 ‘쌀’이고, ‘살’은 ‘살’이라고 불러야 한다. ‘관광’은 ‘관광’으로 발음해야 구경이라도 제대로 할수 있다. 속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조금 다르게 발음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스개 소리로 치부해 버린다. 속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한다. 중국에 가서는 중국인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있을 정도로 발음해야 물이라도 한모금 얻어 마실 수 있다.

비구두언어와 표정언어 만으로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지니스를 하기는 쉽지 않다. 역지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이해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이국적 적선의 소치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의 외국어 교육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성숙한 우리들의 대부분은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의 회의에서, 외국의 관청이나, 외국의 장사 터에서 구걸꾼 행세를 해온것 같아 내심 속이 편하지 않다.

10) 다중언어 구사능력

우리의 신세대마저 그렇게 키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세계화 속의 신세대라면 모름지기 그들은 최소한 3개의 언어정도는 자기속에서 자유롭게 실용화되는 그런 다중언어 다중문화multi language and multi culture세대로 키워내야 한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몸으로 체험하는 현지 체험학습이 비교적 효율적이다. 국제교류 교육의 현지화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방학때만 되면 일본의 국제공항은 외국고등학교와의 친선교류와 친선방문을 하려는 청소년지도자들과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스위스 인

터라켄행 열차에는 배낭과 땀으로 얼룩진 유럽의 고교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서너개의 불상사도 나기 마련이지만 안전교육과 신세대 보호환경이 잘 되어 있어 그리 염려할 것이 못된다.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를 죄없이 지나다 당하는 그런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국제교류나 국제친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선 먼저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들에게 세계화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들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국제교류를 할 때, 그들에게는 외국에 처음 나가는 학생들처럼 관광객으로서 이곳저곳을 기웃기웃거릴 정신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 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외국어 교육과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흡수는 필수적이다.

이제는 영어를 더이상 외국어로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영어는 이제 더 이상 한때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자동차운전 기술처럼, 그렇게 대접받아야 될 특별한 외국어 재간이 아니다. 이제는 생활에서 필요할 때는 늘 일상화할 수 있는 전기 스위치 같은 것이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영어는 비즈니스 언어 이기에 모르면 경쟁의 낙오자가 된다는 것을 경영자문가인 양동빈씨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덴마크의 교육장관은, 과거에는 영어가 제1외국어였지만, 지금은 제2의 모국어라고 말한다.

소니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입사원서에 구사 할 수 있는 외국어를 영어라고 써냈다가, 소니에서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일화도 있다.....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며, 고생할 기회도 점점 더 많아지고있다.....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영어정보가 쏟아져 들어온다. 영어는 마치 거대한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어 닥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 국제사회가 하나의 경제시장이되어가는 지금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귀머거리 혹은 벙어리 신세가 되고 만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도 반벙어리가 수두룩하게 모여있게 된다. 영어를 읽기는 하지만 듣거나 말하기는 생략해야 되는 귀가 반쯤은 먹은 청소년 지도자들이나 교사, 혹은 전문가가 한 둘이 아니다. 영어를 10년씩이나 가르

치고 배웠는데도 그렇다면, 우리의 영어교육은 유죄선고를 받아야 할 처지이다.

제2모국어로서의 영어를 실용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외에, 지구촌 여러나라의 문화를 점검하며 그들의 문화적 흐름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지역언어와 문화를 제2의 외국어와 다문화로 가르쳐야 된다. 다문화 접촉훈련과 다중 언어 훈련은 학교 교육기간동안 완결되어야 한다. 직장에 들어가서 현지교육으로 다중언어와 다중문화를 익히겠다는 것은 그런 인식의 발상부터가 이미 청동기시대의 발상이다. 이제는 더이상 구석기시대의 환경 속에서도 전자시대적인 삶의 질을 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풍자한 영화인 후린스톤The Frinestone의 가족처럼 우리의 신세대를 적당히 교육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기만欺瞞이 될 것이다.

3. 세계화와 가정의 역할⁴⁾

1) 세계화와 가정의 의미

최근 세계가 하나의 공동생활권 내지 공동체라는 의미로 지구화globalization라는 개념이 자주 쓰이고 있다. 지구화란 말은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기술적, 경제적 힘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독자적 논리에 의해 세계 모든 지역을 하나의 이웃으로 묶어주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무궁화호라는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웠듯이 각종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는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워졌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세계는 매우 긴밀하게 엮여 있다. 이런 양상들을 국제화, 지구화, 세계화 등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시각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현상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들어 우리사회의 각종 국제화 지수도 크게 제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수는 지난 89년에 이미 100만명을 돌파한 이래 현재는 연간 300만명 선에 이르고 있으며 방한 외국인 수도 연간 300만명 선을 훨씬

4) 이은숙(한백재단 책임연구원)

웃돌고 있다. 무역에 있어서도 수출입액이 총 1500억 달러에 이르러 무역대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액도 급속히 증가하여 91년에만 1, 673건, 33억 7천만 달러나 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은 해외노동자의 국내 유입과 함께 우리의 사회문화적 가치들이 직접 교류, 전파된다는 측면에서 국제화의 새로운 상황을 열고 있다 보겠다.

뿐만 아니라, 매스컴의 발달로 전세계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최신 국제정보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랩 송이라든가, 영화, 패션, 새로운 상품 등 최신 유행은 물론 걸프전과 아프리카 난민 그리고 소련의 해체와 각국의 내전 등을 안방에서 바로 지켜볼 수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광역의 공동체로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런 세계화의 흐름은 이제 각국의 하부구조인 사회, 가정 전 부문에 그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사회, 가정 역시 기존의 역할만으로 그 의의와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공동생활권인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그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하나의 단일 문화권으로 바뀌어가는 이 때에 가정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가정은 개인을 둘러싼 최초의 조직이며 혈연적인 공동체로서 개인의 인생관이나 사고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원초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가정은 일차적인 여과 및 보호장치 또는 촉진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앞으로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청소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들을 위해 특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2)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심어준다

매스컴 등을 통해 국제정보를 수시로 접하고 여행 또는 취업 등으로 일반인들의 교류가 빈번해 질수록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또한 국제적 감각에 맞

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며칠 전 신문을 장식한 기사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아주 쉽게 아무 생각없이 외래문화를 취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유입돼 있는 것이 바로 일본문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화 또는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어느 것이 외래문화인지 또 어떤 것을 취해야 할 것인지 구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실제로 아주 오지가 아닌 이상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음식 때문에 고생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주생활이나 의생활 역시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다.

전세계인들이 동일한 문화 양상을 보이는 것만큼 그와 비례하여 각국의 고유한 문화나 전통들은 점점 더 고유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각 민족들은 본능적으로 민족중심주의적 가치를 고수하고자 하게 된다. 문화가 말살될 위험에 처한 곳곳에서 자국의 언어를 되살리고 고유문화를 의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최근의 움직임들이 그것을 말해 준다. 역설적이게도 세계화의 진전은 민족주의의 강화 경향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한국적인 것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어느 부문 할 것 없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 속의 가정의 역할로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가정 내에서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것이다. 세계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내 뿌리는 무엇인지 잃어버리기 쉽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외래문화를 주렁주렁 달고, 보고, 마시고, 듣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정체성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조건 한국 것이 좋다는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한국적인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를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것에 대한 자기비하적 발언이나 즉흥적인 비판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민속박물관이나 여행지에서 찾아 보는 향토박물관, 또는 역사 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것도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이것은 애국심 고취 등과 같은 구호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한국인으로서 긍지

를 갖고 자신감있고 당당하게 발을 내딛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 문화유산답사라는 프로그램이 종종 안내되곤 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많이 듣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것들의 재발견이라거나 한국문화의 전통 및 자산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응용 등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가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개인을 존중한다

지금 세계는 소위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정보사회란 인류가 맞은 제3의 혁명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1혁명이 바로 농업사회의 등장이고 제2의 혁명이 산업사회, 제3의 혁명이 바로 정보사회인 것이다(학자들마다 제3의 물결이니, 탈공업화 사회, 후기자본주의 등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이 모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사회를 일컫고 있다).

정보사회 이전의 산업사회는 기계적 사고와 물리적 관리방식에 기초한 경제성장의 시대였다. 기계와 공장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대량생산은 물질적 풍요를 이룩했고 아울러 물질적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인간관계도 이해타산에 근거하는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전락되었고 사회 전체의 관심이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이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질적이고 비물질적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된다.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권 또는 인간성 존중이 될 것이다. 인간 존중의 가치란 인간을 단순히 상품생산의 수단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고유한 가치의 원천이자 창의력의 주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조직의 한 부속품이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의 존재가 조직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소위 신세대라 구분되는 계층에서는 이미 이러한 욕구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조직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며 관료적 위계질서를 과감히 거부하고자 한다. 선호하는 직업에 있어서도 개인의 능력이 확장될 수 있는 전문직을 찾거나 스스로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자영업을

원한다. 그들은 개인 역량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특성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정에서는 이들의 이런 잠재적 욕구를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이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거나 열등감을 자극하여 인격의 성숙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보다는 가정의 민주화가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제 몫을 수행하고 제 몫을 찾는 데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나 사회조직의 인권침해를 막고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를 보호하는 마음가짐은 제도나 정책에 앞서 개인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길가의 작은 풀포기 하나에도 존중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가르쳐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길러줘야 하겠다.

4) 창의성을 키워준다

정보사회는 다원적 사회이다. 다양한 종교, 취미, 가치 등이 사회 내에 혼재하며 어우러지고 있다. 이 다양성 속에서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사고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향감각까지 잃어버리게 한다. 다원적 사회 속에서는 한 가지의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아무도 그 답을 일러줄 수 없는 것이다. 틀이 일정하고 정해진 절차만 따르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따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원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창의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창의성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그것은 교과서 속에 있지 않다. 창의성이란 무엇보다 스스로 행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스스로 직접 수행하는 데에서 모자라는 것, 아쉬운 것, 그리고 만족스러운 것까지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 뿐만이 아니라 친구관계건 학교생활이건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해답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나 부모들은 어디까지나 조언자로서, 충분히 의논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린마음으로 준비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때 조연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이나 사고의 폭은 경험의 터널을 지나온 선배나 부모들보다 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력을 갖추는 또 다른 방법은 자녀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자유로운 상상 속에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조연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가정 내 조연자로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좋다. 세상의 변화를 학교나 자녀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가 먼저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에 대응하는 방안까지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아는 방법으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좋다. 신문을 꾸준히 보거나 전문지 등을 구독한다든지 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자신을 재교육하기 위해 소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와 강좌 등을 실제 들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시사문제를 함께 접해보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자녀들의 관심과 생각의 방향, 깊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조연자로서 자녀들보다 폭넓게 내다 보고 대화할 수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5) 양성적인 성역할을 연습시킨다

개인은 한 사회에서 문화적 규범, 또는 직무, 학습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성역할이란 성별에 따라 사회의 기준에 맞춰 행하는 구체적 행동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성역할의 내용은 사회문화적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남녀 공동의 힘으로 역사와 생활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남존여비적 성역할을 강요받아 왔다. 60년대 이후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기존의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여성들의 자각은 성역할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족법을

개정하는 등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많은 향상을 가져 왔으나 우리 사회의 내부에는 아직도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역할 기대가 서로 대립되면서 상호모순된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 모순은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요인은 취업주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도 전 여성의 47% 이상이 취업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2000년에는 50~60%의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더욱 정보사회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전망은 더욱 확실해지고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함께 여성들의 지위도 더욱 향상될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녀양육의 전책임을 지다시피 하는 여성들이 1가족 1자녀를 요구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는 여성들의 사회적 의견의 독립성과 발언권을 강화시켜 준다. 이는 기존의 성역할 규범에 영향을 끼치므로 가정 내에서 남성우위적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

변화에 대한 요구는 여성들만의 몫은 아니다. 남성들도 가족 부양의 책임을 혼자 지려 하지 않고 여성들과 공동 분담하고자 한다. 얼마 전 한 결혼정보센터에서 결혼을 앞둔 남녀 각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21%가 맞벌이를 제1조건으로 들고 있다고 한다. 93년 실시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도, 기혼여성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에 반대하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76%가 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가정 내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전형적인 남자와 여자 역할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하는 특정 성역할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천적 성이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속성으로서 변경될 수 없지만 후천적 성이란 학습에 의해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을 습득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가능하다. ‘여성다움’은 ‘유쾌한, 도움을 베푸는, 온순한, 동정적, 이해심 많은, 다정다감함, 수동적, 감정적, 충동적, 부드러운, 속기 쉬운, 민감한, 수줍어하는, 의존적’인 특성이다. ‘남성다움’은 ‘공격적, 자기주장하는, 야심만만한, 지

배적, 경쟁적, 유능한, 활동적, 격렬한, 개인주의적, 자기의존적, 독립적, 모험적'인 기질을 말한다. 이런 특성들은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의해 개인에게 학습되는데 현대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화무쌍한 미래사회에서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보다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특성을 모두 갖추는 것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양성적인 인간’이란 전통적인 성역할에 구애받지 않으며 다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개인의 타고난 성격상의 차이를 특정 성역할과 억지로 부합시키려는 것은 그 개인의 능력을 억압하는 일이며 역할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다. 자연스럽게 양성적 역할을 제시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그런 갈등 요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6) 공동체정신을 기른다

앞에서 우리는 개인을 존중하는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가치는 특히 공동작업에서 더욱 그 진가를 나타내게 된다. 앞으로의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이다. 즉 각 부문 부문이 하나의 독립적인 중요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부문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체 결과를 이룩해 내는 사회인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지식이나 노력만으로 원하는 성과를 이룩하기에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어 등장한 조직의 형태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조직의 탄력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각 부문의 단위는 그 목표에 따라 작게는 개인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작은 조직에서부터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미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단위로 긴밀해져 있고 또 세계정부가 등장하리란 예측도 있다. 한 국가의 능력을 일컬어 다니엘 벨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나 크고 큰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나 작아져 버린 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제 어떤 문제이든 전지구적 차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느 나라이든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환경문제에 이르면 그 문제는 매우 명확하다. 환경문제는 당사국은 물론 인접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는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쓰레기 분리수거나 자연보호 같은 일의 실천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이미 상당부분 자리잡아가고 있다.

공동체의식의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공익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선택이나 기업평가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기업 측에서도 생산 활동 외에 고객만족이나 사회공헌 등을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고 있으며, 개인도 사회공동체나 지구환경 등을 배려하는 소비생활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세워야 할 정신적 궤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 정신일 것이다. 이 사회, 이 국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주인이라는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또 다른 공동체정신의 하나로 외국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좀더 균형을 갖춰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들은 주로 미국과 일본 및 유럽 등의 선진국에 치우친 교류와 관심을 갖고 있다. 문화적, 인적 교류의 대부분도 앞에서 제기한 한정된 지역에 치우쳐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으며 그들에 대한 차별과 노동착취 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해외 노동자들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일 것이며 언제까지 노동착취로 이익을 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산업전선의 일꾼으로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 또한 세계화를 훌륭히 이끌어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각국의 문화나 풍습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7) 가정은 중심 핵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인당 GNP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세계화에 깊이 참여하게 되고 더욱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게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동시에 더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임도 예견

케 한다.

60년대 이후 초고속으로 달려오면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인간성 결여, 도덕관 상실 등 아주 많은 대가를 치루었다. 또한 21세기라는 새 지평 속에 혼돈스런 가치관의 범람과 급변하는 불투명한 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이제 가정은 그 속에서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보금자리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지표를 마련해 주는 구실까지 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개념이나 가정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으로는 보다 민주적인 상호 공동체로서의 네트워크 가족관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릴 것 같다. 이것은 가족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상호간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려는 유연한 가족관을 말한다. 이런 제안은 최근의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족구성원들의 생각이나 가치가 전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구조도 전반적으로 소가족화되어 독신가족 또는 무자녀가족이 증가하는 반면 전형적인 핵가족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0년 68.5%에서 90년 66.3%). 또한 가구당 평균 가족 수도 75년 5.1명, 85년 4.1명, 90년 3.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독신가족, 부부가족, 편부모세대 가족 외에도 최근에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커플, 고령싱글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주말에만 모이는 주말가족 형태도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 각 부문에서 세계화에 부응하는 여러가지 대안들이 마련되겠지만 특히 가정의 역할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가족 모델과 가족관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4. 세계화와 사회의 역할⁵⁾

1) 서 론

청소년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모든 기성세대의 속성이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더 이상 그들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정보라는 지식의 체계는 이제 통시적synchronic이 아니며 세대에 수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정보의 흐름은 공시적diachronic이며 방사적radial으로 변환되었다. 이제는 시간의 개념보다 공간적인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나이먹은 사람은 누구나 젊은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농경시대의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나이라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완고한 제도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계몽과 교육에 적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어른이 가르칠 수 없는 청소년과 어른을 가르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세대교체는 정치권에서 이야기 되듯이 40대와 60대 사이에서만 논의될 문제는 아니다. 이제 자연을 변화시키는 물리적 능력은 문명의 진보 뿐만 아니라 세대라는 인위적 구분을 허물고 있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의 윤리와 가치를 이제는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수평적인 상황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보의 동시적 공유를 의미한다. 헨리 모튼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찾아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할 당시 보낸 기사들은 몇 달 뒤에나 뉴욕의 독자들이 읽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아프리카 루사카의 시민들은 CNN을 통해 뉴욕에서 열리는 켈빈 클라인의 패션쇼를 시차없이 보고 있다.

얼마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윈도우 95’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선

5) 서경주(MBC PD)

풍을 일으키며 컴퓨터 시장에 등장했다. 이제 이른바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을 장착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워싱턴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정도가 정보의 획득량을 결정짓는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인류가 생산해내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물리적인 장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는 〈서유견문〉이 나온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 당시에 유길준은 세상이 이렇게 좁아지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1884년 9월 미국 메사추세츠 세일럼에 있는 덤머 고등학교로 유학을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 유길준은 유럽을 돌아 귀국하면서 서양과 조선의 엄청난 발전의 격차에 절망했을지 모른다. 〈서유견문〉에서 그린 개화된 서구의 모습은 그 당시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았다.

이제 세계는 좁아지고 동시에 유사해지고 있다. 누리고 있는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동양식도 비슷해지고 있다. 비슷한 일과 놀이를 즐기고 있다. 월 스트리트의 주가변동은 한국의 여의도를 긴장하게 만들고, 마이클 조단은 올란도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청소년들에게도 영웅이 되고 있다.

1994년부터 언론은 ‘국제화’ 혹은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언론의 권력지향 내지는 권력순응적 속성상 대통령이 ‘국제화 원년’이라고 선언한 데 크게 영향을 받았음은 부정할 수는 없다(김영삼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에 다녀와 국제화를 ‘세계화’로 바꿨다). 그러나 세계화든 국제화든 그것은 정책적인 혹은 정치적인 선택의 대상은 아니다. 세계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세계화는 하나의 필연적으로 강제되는 당위이다.

요즘 유행어가 되다시피한 포스트모던사회는 인류가 진정한 세계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지구상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 고립된 여러 개의 세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의 몰락과 경제교류의 증대와 문화 전파기제의 발전은 세계를 여러 개로 분화시켰던 구획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통합의 시기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세대는 청소년층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다. 그들은 기성세대들이 하나의 통과의례로 겪었던 이데올로기의 세례도 받지 않았다. 그만큼 탈정치적이다. 그들은 인종이나 종교 그리

고 체제의 대립구조에서 오는 갈등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덜 체험했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나 영향에 대해 유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진정한 세계화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학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외국 청소년들의 특성

가. 성장환경

토마스 만은 “할아버지 세대는 돈을 벌고 아버지 세대는 권력을 추구하며 우리 세대는 문화와 예술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일제에서 해방이 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이 50년을 경제발전과 문화적 측면에서 나눠보면 50년전 당시 기성세대인 제 1세대는 기본적인 생존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제 2세대는 이것으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차원의 기업으로 키웠고 제 3세대는 이른바 포트폴리오 재테크 등으로 자본을 관리함으로써 부를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세대이다.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4세대는 돈을 필요로 하면서도 돈을 버는 일 보다는 쓰는 일에 더 비중을 둔다. 그들은 문화를 이해하고 철저히 향유하고 싶어한다. 제 4세대는 소비지향적이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전쟁과 분단 그리고 정치불안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이제는 서구와 거의 대등한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다. 한국은 GNP가 세계 13위, 무역규모는 세계 10위에 올라 있으며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30위권 밖에 머물고 있지만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세계 27위에 이르고 있다. 유엔이 내놓는 인간개발 지수상으로도 한국은 이제 상위권에 속한다. 총체적인 삶의 질이 지난 50년 동안 놀랄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지수들이다. 이런 경제적 성장은 충분하지는 않아도 소비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나. 소비문화의 적자들

청소년들이 소비적인 문화에 침윤되어 가는 것은 지구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생산을 통해 자기를 구현하기 보다는 소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한다. 적어도 소비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들 처럼 세계화를 완벽하게 이룬 집단도 없다. 그들이 먹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세계적이다. 심지어는 우상까지도 세계화 되었다. 나이키와 리복을 신고 리바이스나 게스 청바지를 입고 맥도널드 햄버거나 쉐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주식으로 삼고 있으며 모토롤라 타키온 호출기를 가지고 다니며 랩과 레게를 듣는다. 그리고 이들이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면서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들을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하지 않았지만 윗세대가 이루어 놓은 부를 바탕으로 엄청난 구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의 경우 미국의 10대 8천만명이 570억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는 이와같은 통계가 나와있지 않지만 대략 소비시장의 30%를 이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대 인구가 전체인구의 18%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한가지 예로 우리나라 음반업계는 10대를 가장 큰 구매층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즘 30대 이후의 기성세대들은 텔레비전의 음악 프로그램에 “아이돌 노래만 나온다”고 불만이 많다. 그것은 음반을 구매하는 계층과 관계가 깊다. 실제로 음반업계에서는 전체 시장의 70%를 청소년층이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리복같은 회사는 청소년들의 우상인 샤킬 오닐을 모델로 등장시켜 연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발과 스포츠웨어를 팔아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년동안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펜시업체나 주니어 캐주얼 의류업체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도 청소년 세대의 소비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제조회사들은 이들의 구미에 맞는 상품을 제조하고, 광고회사들은 이렇게 생산된 상품을 선전하는 한편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다국적기업의 광고전략은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을 글로벌하게 획일화시키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광고대행사인 BSB월드와이드

사는 25개국 10대들의 침실을 비디오로 담았는데 화면만 보아서는 어디가 L.A.의 10대이고 어디가 도쿄 10대의 침실인지 구별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우리나라 압구정동이나 롯데월드 그리고 도쿄의 록본기 또 로스앤젤레스의 베니스비치에서 노는 청소년들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별로 다를게 없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보여주는 스탠다드의 아류를 만들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택한다. 넥타이를 맨 정장대신 헐렁한 힙합스타일과 스탠다드 록, 랩과 레게는 그들이 택한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이런 소비성향은 부정적인 측면을 안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르디외의 말처럼 “소비문화는 계급과 계급분과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고 유지하기 위한 지위표시 활동으로 구조화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압구정동의 오렌지족과 이들에 대한 혐오감은 소비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을 잘 나타낸다. 아주 지엽적인 예이지만 8, 9만원씩하는 비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은 신발장에 넣어둔 신발이 없어지지 않을까 신경쓰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소비문화는 가치관의 진공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공간을 뛰어넘어 세계의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다. 탈이념과 개인주의

요즘 신세대를 X세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글라스 쿠퍼랜드가 1991년에 출판한 〈Generation X〉에서 연유한 말이다. X는 수학의 미지수를 상징한다. 이전에 이름이 붙은 세대들은 그것이 현실옹호든 현실비판이든 아니면 현실도피든 하나의 이념을 표방했다.

1920년대의 로스트 제너레이션Lost Generation은 인간관계와 기존의 사회 윤리에 대한 진지한 비판을 모색했으며 탐미적인 예술지향이라는 정서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50년대의 비트 제너레이션Beat Generation이나 앵그리 영맨Angry Youngman은 전통적인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부정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60년대의 히피는 현대문명의 제도적

물질적 억압기제에서 자아를 해방시킨다는 이념을 규범 파괴와 마약을 통해 추구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핑크나 여피도 나름대로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층을 포함하는 최근의 신세대는 어떤 류의 집단적인 가치체계도 부정하고 있다. 아니 부정조차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기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다.

우리가 X세대라고 부르는 대상은 1965~198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15세에서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출생율이 격감한 시기이며 가족구조가 급속히 서구적인 모습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그리고 이전의 시대를 특징짓는 젊은 세대들이 주로 미국과 유럽에 국한되었다면 X세대는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서울이나 도쿄 뉴욕 그리고 방콕과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옷차림과 행동양식을 볼 수 있다. X세대가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디어의 세계화와 관계가 깊다. 위성텔레비전의 확산은 문화전파에서 국경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르면서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은 시장원리를 철저히 신봉한다. 그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시기는 자본주의가 모든 이념을 압도하여 시장의 질서를 모든 가치체계의 최상위에 올려 놓은 시대이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집단적 뱀류시스템을 배격한다. 그리고 전쟁이나 정변같은 사회변동을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치열함이 덜하다. 그들은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쉽게 자살충동을 느끼고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

이들은 혁명이나 사회정의 같은 거창하고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취미생활이나 이성교제 등 삶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면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여기에 집착한다. 그리고 타인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또 노동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왜 일을 해야하나, 내가 이 일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회의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희생하지 않는다. 국가라는 것도 이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전쟁이 나도 60%는 참전할 의사

가 없다고 응답했다. 어떤 이유로든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을 ‘신의 아들’, 방위병을 ‘장군의 아들’,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을 ‘사람의 아들’이나 ‘어둠의 자식’으로 부르는 것은 이런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요즘 흔한 말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방송국 앞이나 농구장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광적인 환호와 응원은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송국 앞에는 요즘 인기있는 〈솔리드〉나 〈디데이 덕〉 같은 인기가수들이 출연할 경우 이른바 오퍼부대가 진을 치고 있다. 그 중에는 지방에서 고속버스나 열차를 타고 올라온 여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왜 여기까지 오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단순하다. “보고싶어서 온다”. 그들은 자기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많은 것을 희생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일 보다는 자신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에 서울대를 비롯해 명문대출신들이 개그맨이나 가수로 진출하는 것은 이런 경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한 일간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명인물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국내에서는 허재와 선동열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국외에서는 마이클 조단과 스티븐 스필버그가 1,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억원이 생길다면 뭘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카페를 열어 평생 그 수입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재테크로 더 큰 돈을 벌겠다는 청소년들이 3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들은 골치아픈 직업 보다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좋아한다.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시간에 쫓기는 이른바 ‘사’자 돌아가는 신랑감들의 인기가 줄어드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들은 욕구를 억제하는 기제에는 무력하거나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이런 특성을 반영한다.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범죄는 10만건을 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비하면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 10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 절반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3)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

21세기를 5년 앞두고 다음 세기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기 말에 미래학 서적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지도 모른다. 한 세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난 세기와 획을 긋고 새로운 세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무수한 전망과 예측이 나온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는 다양한 정보분석을 근거로 하는 과학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은 구체적이지 않다. 언제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반적인 추세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구체적인 예언은 위험하다는 격언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구체적일수록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로 미루어 무리없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앞으로 교통수단의 발달로 공간적인 거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일부 특권층에 국한된 얘기였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구상 어디에서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통신회사들은 몇 년 안에 수백개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려 지구전체를 단일 통화권으로 만들려고 한다. 조만간에 누구나 전화를 한 대씩 휴대하고 개인번호를 부여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교역의 증대이다. 앞으로도 교역을 통해 전체적인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세계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물적 교류의 증대는 필수적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의 증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해외여행객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와 상품의 공유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이 비슷한 소비성향을 갖게 될 것이다. 과거에 우리나라 멧쟁이들은 울지로나 명동에서 양복을 맞춰 입었지만 이제는 파리나 밀라노에서 만든 수입양복을 입는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가 더욱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매일 집안에서 맴돈 사람과 밖으로 나돌며 시장과 극장도 다니고 사람들과 만나 잡담이라도 나눈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전문을 넓히는 것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읽고 세상의 변화를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이다.

4) 청소년들의 세계화

가. 언어교육

세계화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객체이며 동시에 주체이다. 세계화는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그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높이고 외국의 좋은 것을 배워오고 우리의 좋은 것을 외국에 알리자는 것이다. 이런 상식 이상의 이론적 논란은 불필요한 것이다. 한때 세계화의 용어정의를 놓고 논란을 빚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비능률이며 허식이며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상식적인 이해가 가장 명쾌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세계화에는 공격적인 방법과 유인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며 후자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문물을 수용·유치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세계화를 위해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는 의사소통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수 밖에 없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어야 한다.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이집트 사람이다. 그의 영어발음은 형편없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교관 가운데는 발음이 시원찮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의사표

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영어를 해야 국제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다. 한때 우리는 일본사람들의 영어발음이 형편없다고 흉을 보았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영인을 길러내는 하버드 MBA과정에서는 한국학생보다 일본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일본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학원 수업은 대부분 토론식으로 이뤄진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과 교수, 학생과 학생들 간의 토론으로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 그 나라말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 저절로 말이 배워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사람들은 유독 한국사람들끼리만 몰려 다닌다. 그래서 한국사람은 쉽게 눈에 띄는데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언어가 안통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대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복수외국어 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자고 하면서도 막상 외국어를 쓰는데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나타내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외국어를 섞어 쓰는 것을 무슨 미국노처럼 여기는 분위기마저 있다. 한 때는 우리나라가 괄송을 원어로 부르지 못하게 한 적도 있다. 다른 나라 말은 몰라도 영어는 이제 국제공용어가 되었다. 영어를 쓰는데 대한 거부감을 떨쳐버릴 때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부 중고등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외국 대학이나 학원에 외국어 연수를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한두달 사이에 얼마나 영어를 익히는지 의문이다. 대부분 그룹을 이뤄가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도 한국학생들끼리 모여 공부를 하기는 마찬가지이고 강의를 끝내면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한국식당으로 몰려가 한국식으로 한국음식을 먹는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차라리 그런 비용이라면 외국인 교사를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외국인 교사를 유치해 일부학교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나. 외국인과의 접촉기회 확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외국인을 접촉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Work in Asia’는 싱가포르 국제재단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의 8개 다국적 기업의 협찬을 받아 이들 기업이 진출해 있거나 연관 업체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방콕, 자카르타, 호치민, 홍콩, 팔라렘푸르, 마닐라, 텐진, 타이페이에서 8주내지 10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행기표 구입이나 숙소도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한다. 외국에 나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는 제도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청소년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유능한 대학생들을 뽑아 아일랜드에 진출한 외국기업 본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변형시켜 방학기간 동안 외국회사에 근무하면서 언어와 관습을 익힌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화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예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시사문제를 물어보면 의외로 무지하다. 하기가 입시과목을 공부하는 것만도 바빠데니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지만 외국어를 잘한다고 외국인과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대화가 이어진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관심사는 의외로 협소하다. 아마 암기위주의 교육 때문에 폭넓은 시야와 깊은 사고를 기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곤란하다.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적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문화적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를 우수하다고 자랑하는 만큼 외국문화의 우수성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일본의 패션이나 일본의 대중 예술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아울러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본과의 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일본에 대한 이런 모순된 모습은 과거의 식민통치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더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미국이나 다른 구미선진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본문화를 수용하는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일본문화는 무조건 나쁘다” 혹은 “미국 문화는 소비향락적이고 천박하다” 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한국을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외국문화나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해 적대적인 사회분위기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유럽 여러나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뤄지고 또 어떤 이익과 손실을 가져다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미국이 나쁘다, 일본이 나쁘다” 이런 막연한 거부감에서 벗어나 일본과 미국의 어떤 점이 왜 나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외국에 나가 세련된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에티켓을 배워야 한다. 옷입고 식사하고 차를 타는 예절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일본에 가서는 일본의 예절을 영국에 가서는 영국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 한국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나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 탈피해야 할 집단적 가치기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점에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남과 다른 것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무언가 공통분모를 찾고 그 안에 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독창성이 마모된다. 개별적인 존재로 인정받으려는 성향이 있으면서도 주류에 속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많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획일적인 인간형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 점이 서구 선진국의 청소년들과 큰 차이이다. 무언가 남과 다른 것을 했을 때 인정해 주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외국 것을 베끼는 단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세계

화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과감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부추길 필요가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균인의 한계효용은 줄어든다.

개인의 특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다양하고 많은 특수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학교인 외국어 고등학교도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입시성적이 우수한 일반고등학교가 되어 버렸다. 특수한 젊은이들에게 튀지말라고 편잔을 줄게 아니라 그들의 특수한 점을 살려주는 교육을 해야한다.

획일화된 방법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데는 참으로 다양한 기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벌을 바탕으로 한 수직상승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는 통념은 불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입시시험에서 학력의 비중을 낮춘 것은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해도 일단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튀는 피짜들을 고용해 그들의 창조적 역량을 이용해야 한다. 환상을 가진 인간형을 비현실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사회는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들고 스피버그가 <ET>를 만든 것은 다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창조적인 인간이 얼마나 큰 부를 만들어 내고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는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창조적인 인간형을 만들어 내거나, 창조적인 인간이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신세대가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적 성향을 창조적으로 전환시키는데도 역시 집단적 가치체계의 탈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 이중국적의 허용

요즘 미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이 늘고 있다. 90년이후 매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의 끌어당기는 요소pulling factor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다중국적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재미교포중에는 이중국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미국에는 93년말 현재로 한국계 미국시민이 61만명이나 있다. 미국이 점점 이민자에 대해 인색한 정책을 채택하면서 그동안 국적취득을 망설이던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미국시민권을 신청했다. 지금 이중국적을 인정해 주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33개국에 달한다.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마치 배신자나 매국노처럼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선별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는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우리사회로 흡인하는 방향으로도 이뤄진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 2세 3세 청소년들이 조국에 돌아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이중국적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공공도서관의 증설

우리나라에는 독서실은 많지만 도서관은 드물다. 그나마 도서관도 입학시험 취직시험 준비를 하는 장소로 쓰인다. 책을 빌려보거나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는 등 본래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도서관이 열람실 위주로 운영된다.

수천 수만 채의 아파트가 들어선 거대 주거지역에도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 생각을 안한다. 구멍가게식의 책대여점이 성업중인 것은 공공부문에 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탓이다. 차를 타고 한 두시간 씩 가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대형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책은 읽혀질 때 가치가 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작게 나눠져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책을 빌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진정한 정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는 정보화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5) 결 론

올해 50주년을 맞은 유엔의 학술문화기구인 UNESCO가 내건 슬로건은 관용tolerance이다.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나름대로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주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요즘 신세대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들은 개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개성을 존중한다. 기성세대들 보다 타인에 대해 관용을 가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신세대를 항상 문제의 대상으로 보지만 어차피 우리의 미래는 그들의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신세대 청소년들의 개성을 어떻게 너그럽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가?” 이것은 기성세대들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이다.

5. 세계화와 청소년의 자세⁶⁾

1) 서 론

이 글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어찌보면 대단히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일관되어있다.

전체 내용은 사회가 해줘야할 일보다 우리 스스로가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 초점을 두었다. 필자 자신이 기성세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도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 데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인은 자신의 연장에 대해 불평 안하지 않는가?

6) 박래덕 (서울대 외교학과 3학년)

2) 세계화와 신세대의 자세

가. 세계화의 의미

세계화란 의미가 던지는 시대적 화두는 무엇인가? 비행기,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의 발달과 위성통신, 인터넷과 같은 국제적 통신체계의 급진적 발달은 종래의 시공간적 개념을 무너뜨렸다. 사실 이러한 말 조차 너무나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국가적 월경 현상은 가속되고 있으며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기존 질서에 가하는 질적 충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그 주체가 될 신세대가 어떻게 현상에 접근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는가가 오늘 이 자리에서의 과제일 것이다.

globalization을 보통 지구화라고 번역한다. 지구화란 ‘지구촌 시대’라는 평화적, 우호적 개념이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환경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공조체제가 필요한 과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라고나 할까? 게다가 우리가 이 개념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개념이 현대 산업사회를 구축하는 주체였던 국가를 뛰어 넘어 보자는 근대국가 해체성의 가속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의 중요한 틀은 상비군의 강력한 폭력powerful force과 방만한 관료체제, 그리고 이들을 기능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재원의 마련, 즉 조세제도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군주의 역량은 이 중 얼마나 효과적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료적 기능을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결국 군주는 봉건귀족세력을 견제하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분제도를 초월할 수 밖에 없었고, 신흥부르주아들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인 계급과 군주와의 관계는 자기 생존을 위한 모순적 관계의 시발점이었다. 결국 급격히 성장한 부르주아들은 혁명을 통하여 군주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속에서 새로운 계급적 계층, 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냈다. 또 한번의 혁명 분위기가 국소적으로 발발했지만 자본주의의 위기대처 능력은 중산층이라는 중재자적 계급

을 만들어 냄으로써 모순의 한계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게다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사기술 발달이 경제적 high-tech로 이어지면서 어느 누구도 예언하지 못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냈다. 이와 함께 근대국가도 거대한 티라노사우르스로 변해 버렸다. 하지만 거대한 몸을 가진 근대국가도 서서히 중생대 말기로 접어들고 있다. 아니 그러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으며 ‘위기의 지구’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단지 어떤 이데올로기나, 계급성으로 극복하고 또 다른 체제로 다가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밟고 가는 이 곳 지구가 산업폐기물과 가정용 폐수,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또는 핵전쟁에 의해 지구인 모두 자멸한다는 노스트라다무스적 예언인 것이다. 거대한 국가는 자기체제 유지를 위해 지속적 경제 발전을 필요로 하고, 마치 군주와 결탁한 부르주아가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엮는 것처럼 다국적, 심하게는 초국적 기업이 국가성을 부인하는 현상이 돌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호 모순적 보완관계를 끊을 수 없는 곤경에 빠져 있다. 결국 국가에서 말하는 세계화는 곧 경제적 지평선 확장을 필요로 하는 자본의 논리에 자승자박된 역설의 극적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현재 국가가 완전히 붕괴하리라는 예상은 헛소리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성의 약화가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국가가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양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살펴야 보아야 한다.

신세대들에게 세계화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현상의 저변에 깔려 있는 주요 원동력이 자본의 힘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빈궁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의 힘은 마찰력의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자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폐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도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상당 시간이 흘러서야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가시적 성과만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끝이 보이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현재 세계화도 모두 사적 이해 관계에 얽매어 있다. 정부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국가의 가시적

발전을 위해서 존재 자체를 담보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은 나름대로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소비용지와 물자를 선택하려 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해줄 것을 강제해야 한다. 바로 ‘세계 제일’과 같은 말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주체이다. 이들은 인간사회를 약육강식으로 정의하고 살아남기를 강제할 뿐, 각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나. 세계화와 신세대

신세대라는 말에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으며, 그 부정적, 긍정적 의미가 공존하고 있음도 주지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신세대란 단어가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어 계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하고 넘어 가자. - 70년대 이후 출생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의 연령층인 신세대가 느끼는 세계화는 무엇인가?-(물론 세계화란 단어를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냥 받아 들인다면)

신세대는 세계화란 개념을 무국적성과 특기마련의 두가지 정도로 정의하는 것 같다. 우선 무국적성이란 상품 구매에 있어서 국산품 애용이라는 식의 애국적 발상을 기피하고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두번째 특기마련이란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강요 받았다고 해야 옳을 듯한데, 쉽게 외국어 능력 배양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강요의 주체는 여러이겠지만 그 중에서 기업측의 요구가 가장 강하다.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근무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신입사원 지망자들은 그러한 조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대학사회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신입생들 대부분이 들어오자 마자, 목적에 상관없이 토끼를 공부하고, 자신의 직업을 선정하며 그에 알맞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물론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프로정신’이 깃들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대학이 상아탑의 기능을 잃고 직업마련의 터전으로 변했으며, 학과 공부는 지겹지만 학벌을 따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 정도로 밖에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어느덧 대학가에서는 운동권과 반운동권이 확

연히 구별되었으며, 우리들 스스로 그 어느 쪽에 서도록 강요받고 있다. 아니 오히려 반운동권에 서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로부터 강제받고 있는지 모른다. 아무튼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는 우리로 하여금 강한 개체로 살아 남을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학교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자 마자, 새로운 사회로의 입시지옥을 강요 받고 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할 여러가지 기능을 습득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습득 방식이 너무나 구태의연하여 본인이 보기에 고등학교 암기교육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토플문제를 풀면서 점수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대입준비시 모의고사 점수 향상에 목을 매던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금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신세대의 위치는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지극히 불평등하며 억압적 자리에 처해 있으며, 결국 그러한 고리를 스스로 끊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속아 왔다. 단지 그들이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다가는 우리의 창의성과 도전의식은 또 한번 자본의 논리에 밀려 현실과 타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자본의 힘에 내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

소위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이란 세계주의자들을 가르키는 말이며, 초국가성을 지향한다. 세계주의란 사전적 의미로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여 온 인류를 한 동포로 보고 인류사회의 통일을 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화의 의미가 물론 세계시민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성의 강화로 파악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제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한개인의 질적 변화를 강조하며 그것이 기본적으로 언어능력의 배양과 국가를 뛰어넘는 의사소통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처음에도 지적했듯이 근대국가성의 보존과 해체의 변증법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제화가 세계시민의 자격론을 거론하는 모순적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이러한 자격을 갖춘 주체는 누구이며 또한 이러한 것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세계시민의 정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초국가성을 지향하는 이들 무리는 근대적 국가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개인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탈근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젊은이들이다. 또한 이미 기성의 체계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신세대들은 이러한 면에서는 대단히 자유로우며 이미 상당 부분에서 탈근대성에 대한 적응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대의 자격미달론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사고의 측면이 단지 패션과 음악, 패스트 푸드정도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전략에 맡겨둔 채 나오는 대안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신세대가 처한 한계극복의 과제는 너무나 많이 있다.

우선, 우리가 처한 정치적인 외적 상황이다. 흔히 현대는 탈근대적 상황을 맞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반도라는 특수한 배경을 살펴 보면 그렇지 않은 않다. 한반도 외부에서는 빠른 탈근대적 상황을, 내부에서는 허리가 잘린 유일한 반도국으로서의 근대적 상황이 엄연히 잔존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교육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근대와 탈근대의 결합이 그 어느 나라보다 극심하지만, 이는 단지 우리의 사상만이 아닌 우리의 신체와 행동의 폭을 제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배낭여행과 같이 신체적 이동의 경험이 활발해졌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를 위로해 주는 정도이다. 국내적 민주화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자라나는 세대의 민주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뿐 아니라, 개인주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전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반도의 재결합만이 우리의 근대성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외적 상황을 말할 때는 언제나 현실성이라는 고리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연성만 가지고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으며, 능동적으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 국제 감각

우선 각자 개인을 생각해 보자. 수년간 영어를 하고도 노랑머리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정이다. 이러한 외국어는 개인적인 노력이니 우선 차지하고 보자. 나는 한일학생회의라는 단체를 통해 일본친구들과 많은 접촉을 해보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은 재일교포 문제였다. 단편적인 예지만, 어릴 적 ‘자랑스런 한국인’이라는 만화책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야구선수로 성장하는 주인공을 보며 나는 일본의 재일동포 차별에 대한 반일감정을 키워 왔다. 아울러 재일동포에 대한 끝없는 끌어안음을 상상 속에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동경에서 열린 회의에서 막상 재일교포가 나의 파트너가 되었을 때, 나는 대단히 어리둥절해야 했다. 그녀는 조금씩 더듬지만 몇마디 던지던 한국어를 동경 지하철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일본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서슴치 않고 일본인이라고 말했다. 처음 그들의 조상이 일본에 끌려 갔을 때 그들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말과 이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참아 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3, 4세대는 점점 그러한 과거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에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재일동포 처우문제도 곁들여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들은 더이상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이번 제 10회 한일학생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는 반문이 만만치 않았으며, 재일동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한국측 어느 분과원의 논문에 대해 재일동포로 부터 ‘우리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는 반문을 당하기까지 했다. 물론 아직도 그들은 한국을 그들의 조상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것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지금 우리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을 이 땅에 불러 모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일본인과 다를 바 없으며,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자신도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얽매인 돈벌이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자신의 인권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지 모른다. 결국 재일교포 3, 4대에 이르러

서 그들은 서서히 근대적 국가라는 개념에서 후퇴하고 있는지 모른다. 특히 한국과 같은 단일민족에게 있어서 그러한 현상은 대단히 충격적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혈연이 아닌 편리와 서비스 제공으로서의 국가적 역할만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쪽으로 기우는 것은 어찌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지도 모른다. 여기서 굳이 이렇게 길게 재일교포의 국가인식에 대해 논한 것은 국가성이 해체되느니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하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국제적 감각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이번 8.15행사를 통해 수많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현재의 변화를 제대로 짚어내는 데는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TV속의 주인공은 대개 교포 1, 2세였다. 만일 3, 4세대에 포커스를 맞췄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과격하고 몰가치적인 견해에 적지 않게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책에서만 감지할 수 없는 내용이며, 부딪혀 보지 않고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국제감각이란 해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에티켓이나 다른 나라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해야 적절한 처신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일본인의 한국관에 대해 잠시 언급해 두고 싶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인의 한국관이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알고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는 작년에 일본에서 북한이란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 그들은 아직 우리를 그들과 대등하게 여기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짝사랑한 중국에 대해서 일본은 그 거대한 영토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낙관적이며, 경외감마저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그들에게 쫓겨나고 있다. 과거 사죄만을 요구하는 오만한 족속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듯 했다. 새벽 1시가 되야 대낮이 되는 신주쿠에는 윤락가 여성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있다. 그들은 흑인은 받아도 동양인은 받지 않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해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물론 유학생 형에게 들은 말이지만 일본인이 동양인이길 거부한다는 사실을 느끼기에 충분

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자신을 유교문화권으로 넣길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독자적 일본문화... 우리는 상황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후배로부터 자신이 일본사람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는 말을 들었다. 외국에서 일본 사람은 인정을 해준다는 뜻일 것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특히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자존심은 대단하다. 그래서 링컨이라는 국제정치학자는 한국을 일본에 대해 가장 오만한 국가라고 말했던가? 쉽게 해결될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앞에서 떠든 세계시민을 부르짖는 서양 사람들은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또 한번의 모순적 관계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 국가성을 뛰어넘는 세계시민적 감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자신을 그렇게 되도록 뒷받침하는 국가의 발전 또한 아직은 중요하다는 점을 말이다. 다시 얘기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나) 우리 것을 알자

내가 몸담았던 한일학생회의는 일본친구들과 한일간 제반 문제에 관해 분과를 나누고 각 분과당 각기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 여름회의 기간 중 회의를 하던 단체이다. 나는 거기서 조금 색다른 경험을 했다. 작년 동경대회에서 나는 당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북한 핵문제를 다룬 ‘한반도 정세’를 분과에 속해 있었다. 나름대로 빼곡히 적어 놓은 논문과 자료를 들고 일본에 갔을 때, 내가 준비한 것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한 몇몇 자료와 최근 일본의 군비증강 계획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밖에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반박한 몇몇 글과 재반박한 글을 잘 살펴 본 후, 일본친구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준비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토의 중 발생하고 말았다. 8차례의 분과회의 중 서서히 통일문제로 접어 들고 있었다. 동경대에 재학중인 상대방 팀장은 나에게 한국의 군비증강을 자세히 물어 왔다. 조금씩 당황했다.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 왔을 때는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날 나는 한반도와 그 주변국의 안보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필수 불가결하며, 어느 정도 중립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이 동북아 안보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지를

떠며 일본에서는 한반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통일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술머시 준비해 놓은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대뜸 그런 좋은 일이라면 특별히 반대할 것 없다며, 분위기를 급전환했다. 그리고 잠시후, 일본측에서는 그럼 한국에서 바라는 통일은 흡수통일인가? 통일 후의 체제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인가? 통일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의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며 저돌적인 질문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등한 자격의 경제 교류와 같은 점진적 통일을 말했더니, 그럼 경제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가 북한에 설치되어 있느냐며 반문해 왔고, 두만강 유역 개발에서 보여준 허점을 하나씩 꼬집기 시작했다.

우리는 세계화하면 우선적으로 바깥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한다. 우선적으로 말도 배워야 하고, 뭐도, 뭐도..... 물론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단지 구호가 아니었음을 절감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외국의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물어 보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를 조금 더듬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고 하나라도 가르쳐주기 위한 성의를 보여 준다. 하지만 외국 사람이 한국사람에게 한국에 관한 사실을 물었을 때 만일 그 사람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그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된다.

결국 자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자기만의 빛깔과 맛을 낼 수 없으며 결국 독창성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 세계시민과 정보화

토플러가 정보화 시대를 제3의 돌격이라고 정의한 이후, 우리는 그 실제적 힘을 수없이 목격하고 있다. 걸프전에서 미군의 정보전쟁은 단연 수위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미군은 사전에 이라크의 레이다망 요충지를 파악, 정확히 공중에서 격파함으로써 후세인을 전쟁 초반에 장님으로 만들었으며 전쟁을 쉽게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는 미국의 국력 쇠퇴를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미국을 지는 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는 미래

의 파워가 될 막강한 정보수집과 분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엘고어의 정보고속도로로 표현되는 미국의 꿈은 실현 가능한 것이며, 머지 않아 또 다른 미국 전성기를 맞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현재 위성사업에 뛰어들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그러한 위력을 이미 실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정보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정보취득 능력이다. 이번 대회전에 우리는 일본친구들과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시도했었다. 이미 그들에게 인터넷은 대단히 일상적인 수단이 되어 있었으며, 수많은 외국인과 인터넷을 통해 만나고 교류하고 있었다. 그러한 개인의 정보 획득능력은 그들의 국가 경쟁력을 높히는 것일 뿐 아니라, 한 개인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정보이용을 생활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우리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할 것이다. 전기 입자를 통한 월경이야 말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빠른 국가해체의 본보기이며, 개인이 국가란 제한 쪽에서는 이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실현 가능케 해줄 것이다.

라) 우리의 미래와 인간애

앞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지구촌의 탈근대적 상황이 근대적 상황을 근거로 서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많은 모순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탈근대적 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한계를 살폈으며, 개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를 논의하다 다시 근대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회귀적 문제의식을 되짚어 보았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변화하는 지구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충격과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자.

물론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류가 가지고 왔던 꿈, 희망과 같은 인간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가 없는 하이테크 산업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비극적 결말로 이끌 것이라라는 것이 견해의 요지다.

인류의 역사는 반목과 화해의 역사였다. 원시시대에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불안과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과 무기를 만들었다. 이는 곧 살인과 무리지움으로 이어졌으며, 계속적인 문명의 발전을 거듭했다. 자기 부

족의 권세를 위해 다른 족속을 살해하기도 하고 그들과 연합하기도 했으며, 이는 근대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자신과 정치적, 경제적 이념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이해를 위해 결속하기도 하며, 같은 이념 속에서도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서로 반목하기도 한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정치 안보적 차원에서는 깊은 우방관계에 있지만 경제 논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반목관계에 종종 휩싸이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결국 인간은 Hobbes식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기본으로 하지만, 자기 생존을 위한 화해라는 모순적 결과를 감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편 이러한 문명의 이기적 욕구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에 humanity임은 대단히 아이러니칼한 현상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어찌 생각하면 인간의 이기심이 극도에 달할 때마다 인류를 구원해 준 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인간애였다. 파시즘의 서술이 시퍼럴 때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류를 구했다. 가장 이기적 동물인 인간에게 남아 있는 인간애는 대단히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인류는 자연에 반목하는 행위를 수없이 자행하고 있다. 소위 지속가능한 발전 따위의 탈상마저도 현실과 철저히 타협한 결과이며, 자연과의 고별식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시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기본적으로 인간애이다. 인간애가 없는 우리의 미래는 황량함 그 자체이다. 우리에게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자연과 인류를 구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

3) 결 론

지금까지 국제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 수용 대상중 한 개체인 신세대 의 반응에 대해 살펴 보았다. 21세기의 주인공인 신세대가 앞으로의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뿐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적 감각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 교류의 경험과 언어, 문화, 정치, 경제등의 학습이 뒤따라야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의 것을

말하는 것은 빈수레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제화란 자기 것을 서로 내어 놓고 견주면서 그 우수성을 서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 어울릴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더이상 컴맹은 현대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 공유야말로 개인이 국가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성장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아직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 공간을 보장해 주고 공동의 선을 이루는 데 쓰이도록 협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도덕적 자세일 것이다. 넷째, 인간애를 잃어서는 안되며, 그것만이 반목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사회의 폐단이 질게 드리워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할 문제이다. 동시에 이러한 인간성이 삭제된 국제화는 자본의 논리에 춤을 추는 노동력 착취에 지나지 않으며, 무엇보다 인류전체를 파멸의 곳으로 밀어 넣는 원동력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국제적 안목과 자격을 갖춘 신세대가 다가오는 미래의 역군으로서 한 국가가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시대를 이루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

Ⅲ.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 프로그램

1. 활동의 구성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은 청소년이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상황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5개 과정의 순차적 단위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청소년이 상호교류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내용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국제인으로서의 자세를 활동프로그램화하고 있다. 이 5개 과정은 우리 청소년과 같은 또래의 외국 청소년과의 교류준비에 따른 이해부터 어른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 그리고 국제교류의 주요한 단위가 되는 국가를 비롯하여 궁극적으로 인류공동의 목표에 대한 상호이해의 방법을 모색하는 교류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개인적인 수준의 교류활동에서부터 국가간의 광범위한 교류활동에서의 태도와 자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 과정별로 외국 또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에 앞서 우리의 청소년과 어른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이해하는 활동을 기초에 놓음으로써 청소년들이 주체적 의식을 갖고 국제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구성에 있어 ‘두통이’라는 의인화된 청소년이 국제교류를 준비하고 직접 경험하는 한편, 5개 영역의 국제교류준비활동 수련거리를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꿈속에서 세계를 여행하며 부딪치는 문제와 느낀 점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교류준비활동이 집단수련활동인 동시에 개별적인 활동영역으로서 활용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2. 활동의 내용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은 연속되는 5개의 과정 및 준비와 마무리의 과정 총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국제교류활동을 준비하며 : 국제교류 및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과 해외에서의 행동요령등을 만화로 구성하여 국제교류의 기초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

2) 청소년과의 만남 :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권리, 책임, 자세, 태도 등을 습득하여 응용하는 활동

① 지피지기면

개인으로서의 ‘나’가 아닌 민족적 특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나’를 비롯한 청소년의 특성과 생활습성의 장단점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간의 교류활동에 있어 보다 정확한 자아의식과 긍지를 갖고 임할 수 있는 태도를 습득한다.

활동 1 나는 단군의 자손

활동 2 나는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

활동 3 거울앞에 서서

② 외국 친구들의 장점과 단점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보다 자유롭고 보다 책임감있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 청소년들의 실상을 알아 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새로운 마음 가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 1 내 인생은 나의 것, 책임 그리고 자유

활동 2 영상으로의 만남

활동 3 같은 세대, 다른 가치관

3) 어른과의 만남 : 우리를 비롯하여 각국의 사람들의 성품과 성향 그리고 민족적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

① 조용한 아침의 모습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우리 고유문화의 이해활동을 통해 한국인의 고유한 색깔을 찾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족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얻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활동 1 문학에 깃든 우리 얼

활동 2 지켜야 할 멋, 버려야 할 잘못

활동 3 온고지신 溫故之新

② 절약하는 민족, 친절한 나라

세계 여러나라의 종교와 민족성 그리고 대표적인 위인들을 통해 미래세계의 주역으로서 이웃으로서의 국가적 연대감을 형성해 보도록 한다.

활동 1 국경있는 신의 나라

활동 2 VTR로 떠나는 세계 문화기행

활동 3 세계 위인과 한 자리에

4) 사회와의 만남 :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문화, 풍습,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활동

① 무엇을 보여줄꼬

국제교류 활동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가지 활동 방법을 통하여 익힌다. 즉,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인식하여 세계속의 한국에 대해 긍지를 습득한다.

활동 1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에요

활동 2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예찬

활동 3 김치, 입맛 돋구는 세계적 음식

② 모르는 지식, 아는 무지

국제교류에 앞서 많이 보고 배우는 것만큼 무엇을 알것이며, 무엇을 볼 것인가는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준비자세라고 할 수 있다. 미리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자세로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익힌다

활동 1 아는 만큼 본다

활동 2 동화속으로...

활동 3 세계가 한눈에...

5) 국가와의 만남 : 각국의 역사와 국민들의 역사인식 그리고 정치 경제 사

회체계에 대한 이해활동

① 역사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인간은 역사의 흐름을 답습하면서 또 다른 역사를 창출한다. 그러므로 한국사를 알면 세계사는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여 보다 거시적인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활동 1 민중의 사랑과 분노 그리고 꿈...

활동 2 역사신문 만들기

활동 3 문학이 담고있는 역사의 풍속

② 큰 인물, 큰 그릇

세계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예술활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세계를 접하고, 세계사를 바꾸었다고 할만한 세계사속의 위인들에 대하여 익힌다.

활동 1 세계속의 경제

활동 2 나는 어떤 모습으로...

활동 3 세계의 축제

6) 지구촌 한가족 :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인류평화이념에 대한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활동

① 민주, 평등, 자유를 향해

선진복지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민주, 자유, 평등 이념이 정립된 배경과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청소년들이 생활속에서 체득하는 과정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세계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가치를 탐색한다.

활동 1 권리와 의무

활동 2 모든 인간은...

활동 3 참 자유를 얻는 법

활동 4 평화만들기

② 봉사로 세계를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청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정신을 봉사활동으로 구체화하여 세계화시대의 동반자인 후진국가에 실천적인 인류애를 발휘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폭넓은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정립한다.

활동 1 등잔밑에 밝은 불을

활동 2 우리 함께 일해요

활동 3 세계를 사랑으로

활동 4 개성있는 이웃, 참된 봉사

- 7) 국제교류활동을 마치며 : 국제교류 또는 여행할 때 부딪치는 문제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활동

3. 활용방법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제교류에 따른 생활예절과 태도 그리고 국제인으로서의 자세를 습득하게 하는 정보중심의 인식활동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통이’라는 의인화된 청소년을 통해 국제교류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해외여행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여행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만화로 제시함으로써 흥미있고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교류에 있어서 기초활동이 된다.

둘째, 5개의 연속된 과정을 통해 국제교류활동의 기초적 소양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활동프로그램화하고 있다. 국제교류활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 습득해야 할 정보와 청소년들의 자세를 우리나라와 외국과 대비시켜 청소년에서 성인 그리고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평화라는 확장된 체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모의여행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를 가상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제교류정보와 그에 따른 청소년의 자세를 종합하여 가상활동여료를 예시함으로써 응용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하는데

있어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시사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활동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직접 실행해 보는 수련거리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각 단위마다 국제교류의 기초가 되는 각종의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집단활동의 프로그램기능과 함께 ‘두통이’라는 의인화된 개인의 국제교류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개별적인 활동구성과 체계를 수립하는 데도 유용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장차 국제교류를 위한 기본자세인 국제인으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정립하는 다양한 요소의 내용을 수련거리화함으로써 직접 활용가능한 내용과 준비과정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 책은 인식-이해-활동의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들이 획일된 프로그램형태가 아닌 동일한 맥락속에서 다양한 활동형태와 방법을 경험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사고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행동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IV. 결 론

세계화, 국제화의 선언적 구호와 정책적 의지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국제교류는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단순한 여행으로부터 국제간의 무역거래 등 다방면에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빨라지고, 다양성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무역규모 10위권의 국가로서, 국제연합의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지위와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후진국으로서 받는 국제적 특혜도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물결은 기성세대의 땀과 눈물의 산물이다. 지정학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열과 인내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온 조용한 다수인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일구어낸 토양인 것이다.

이 바탕위에서 이제는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세계로 뛰어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 국제교류는 국제간의 만남이다. 즉, 체험과 경험적 활동이다.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단일한 이론과 지식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능동적이며 적절한 대처양식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이미 국제사회에 개방된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는 거부감없고 당연히 다가오는 활동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아직도 외국문화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자세와 무분별한 외국제품과 생활에 대한 선망 그리고 가난한 국가와 외국인을 무시하는 태도 등은 국제사회의 성숙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가운데서 국제교류에 임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무 준비없이 보낸다면 편견에 가득찬 눈으로 세계를 보게되는 낭패를 겪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은 청소년들이 국제인으로서의

자세를 익히고 외국의 문화와 생활풍습과 습성 그리고 실제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몇가지 형태로 프로그램화하였다. 수련거리로서의 활동성과 흥미성을 잃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안목과 태도 그리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은 국제교류에 관한 모든 사항이나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수련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련활동을 체험함으로써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철저한 사전준비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국제교류의 기회를 가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히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공적인 국제교류로 좀 더 넓은 마음과 안목을 키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수련거리가 이웃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미시적인 이해로만 그친다면 국제교류준비활동은 수련거리로 만든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다. 좀 더 재미있고 활발한 체험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마음속으로 넓히고 보다 많은 사색과 인류의 갈등과 평화를 위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다면 수련거리로서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은 수련거리로서의 의미를 일차적으로 갖고 그를 바탕으로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지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무섭 외 1인(1987),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호(1995), 젊은 여행자들—유럽, 학생여행문화센터.
- 김세광(1994), 품위있는 해외여행, 한뜻.
- 김순은(1993),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효과적 추진방향,
부산직할시정연구.
- 김영돈(1995), 젊은 여행자들, 학생여행문화센터.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아시아 1, 계몽사.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아메리카, 계몽사.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아시아 2, 계몽사.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오세아니아 외, 계몽사.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유럽 1, 계몽사.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유럽 2, 계몽사.
- 등지기획팀 엮음(1994), 해외여행 출국에서 귀국까지,
도서출판 등지.
- 민경대(1993), 강릉대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강릉대학생활연구.
- 박영숙 외 1인(1987), 초·중등교육 국제비교,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과 편(1991), 국제교류개요,
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국제교류과.
- 손효원(1995), 젊은 여행자들—아시아, 학생여행문화센터.
- 유네스코(1985), 국제 이해교육 발전계획 연구, 유네스코.

유네스코(1986), 국제 이해교육 연구활동 추진계획, 유네스코.
 유네스코(1987), 국제 이해교육 현장보고서, 유네스코.
 유진(1988), 청소년 국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청협.
 윤재현(1989), 배낭족 이야기, 햇빛출판사.
 이남주(1985), 청소년 단체활동과 국제교류, 국희보.
 이만갑(1987), “교육의 국제교류 ; 한국적 시각에서”,
 국제학술대회논문집.
 이은재(199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방안, 지방행정.
 이택희(1980),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이해교육 실태조사연구”,
 논문집 제15집, 서울교육대학.
 이학중(1992), 국제교류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대학교육.
 임영재(1990), 대학의 국제교류 실태와 문제점 ; 대학교육과 국제교류,
 대학교육.
 임현국(1994), 해외여행의 길잡이, 백산출판사.
 전국재(1988), 캠핑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엠마오.
 정문현(1994), 해외여행에 필요한 건강정보, 을지서적.
 진인권(1991), 세계 여러나라의 사회교육, 법문출판사.
 차광선(1990), 청소년단체 국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청협.
 최유림(1989), 넓은 세상을 왜 좁게 사나, 유럽문화사.
 통일원(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원.
 한국여행인클럽(1992), 여행 여행인, 백문사.
 한영환(1987), “개방 국제화 사회에 대응한 교육”, 미래사회 변화와
 한국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5주년 기념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해외배낭여행동아리(1994), 갈팡질팡 뒤죽박죽 허겁지겁,
 민서출판사.
 홍사명(1987), 국제교류효과의 분석적 고찰 ; 국제화시대와 교육정책,

국회보.

Lauwerys, J. A.(1974), 국제 이해교육 지침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Lauwerys, J. A.(1982), 국제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